



2019년 새해는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월 12일 (토) 제 1713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제 116대 국회 초선의원 81%가 기독교인

퓨리서치 보도, 전체 88%...크리스천 상하원 의원들 선한 영향력 기대

미국내 기독교 지형 변화 즉,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지만 국회 상하원에는 크리스천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지난 3일 개원한 제 116대 국회에 입성한 97명의 초선 의원 중 81%가 크리스천으로 이는 미 성인 평균치인 71%보다 10%나 상회하고 있는 수치다.

국회내 크리스천들의 압도적인 포진은 지난 2017년 115대 국회에서는 91%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는 88%로, 국가 통치, 경영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게 된다(Faith on the Hill : Religious composition of the 116th Congress).



퓨리서치가 이번에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제 116대 국회는 신앙의 다양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물론 무슬림으로 히잡을 쓰고 하원의원 선서를 한 경우도 있지만, 크리스천 진영에서의 다양한 직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일학교 교사, 집사, 크리스천 사립대학 졸업생, 선교 여행 참가자, 기도하는 사람, 전 목회자, 그리고 많은 교인들로 신앙을 통한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미조리, 상원의원 조시 하울리는 "로마서 13장에서, 정부 관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묘사된다"며 "88%나 되는 크리스천 의원들의 국회 입성은 바로 하나님이 정치 영역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개신교 크리스천들의 약진이 주목받는다. 특정 교단 소속이라고 밝히기 전에 보통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적 개신교인 또는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초선 의원들은 23%이고, 상원은 60%, 하원은 54%다. 여기에 지난 중간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종교인 중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16명의 의원들의 등원이 결정적이다.

현 국회에서의 종교적 의원 분포 상황

은 또 다른 면에서 미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한다. 즉 미국인 중 23%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그리고 특별한 것을 믿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상원에만 오직 1명(Sen. Kyrsten Sinema, D-Arizona)으로, 0.2%의 지분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교단의 마이너스 성향이 시사하듯이 이번 116대 국회에서도 성공회, 장로교인이 115대 국회보다 9명 부족하다. 감리교, 회중교회 그리고 크리스천사이어티시스트 역시 1자리씩 빠져나갔다.

정당 별로 봐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확연하다. 116대 국회에서 상하원 252석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 중 단지 2명(유태인)만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민주당 역시 282석 중 61석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을 보면 민주당이 밝힌 미국인 중 57%만이 크리스천이지만 국회에서는 78%가 크리스천이다. 공화당은 동일한 정치적 경향을 가진 크리스천이 82%이나 국회에서는 무려 99%가 크리스천이다.

한편 8년 만에 하원 탈환에 성공한 민주당은 3일, 연방정부 섣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은 '제로(0)'로 잡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섣다운 해결은 요원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미주크리스천신문이 2019년을 맞으며 새로운 지면형태와 내용으로 독자여러분을 찾습니다!

본지는 2019년 새로운 발행인을 맞아 제 1713호를 시작으로 지면크기를 축소해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내용은 더욱 알차게 편집합니다. 또한 목회자 뿐 아니라 평신도의 신앙 증진과 문서선교에 동참하도록 새로운 지면구성을 준비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 우수한 고정필진들의 깊은 영성과 주옥같은 글이 2019년에도 독자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필진들을 발굴하여 신앙의 길잡이와 더불어 다양한 읽을거리로 생활의 도움도 제공합니다.

양곡교회 담임)이 합류합니다.

- "영어로 보는 성경"이 유상열 목사님(리빙스톤교회 담임)을 필진으로 새로 연재됩니다.



미주 한인교계 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인교계와 교회, 성도 및 선교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또 인터넷 시대에 맞춰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로 말 빠르게 한인교계 소식을 전합니다. 웹사이트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면구성

-매주 발행인 칼럼(김성국 목사)을 게재합니다.



- "시론" 새 필자로 김인환 목사님(전 총신대총장)을 모십니다.



- 새 칼럼 "목자의 목상" 필자로 이종식 목사님(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을 모십니다.



- "목회서신" 새 필자로 지용덕 목사님(미주



아울러 후원교회와 후원단체, 사업체, 후원자들에게 감사와 아울러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기간 동안 종이신문 광고를 무료로 웹사이트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지면신문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돼왔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전해나가고자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사랑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애독자, 광고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12일
미주크리스천신문



3면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면

시론
최해근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이민 교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지도자 초청 '성경목회부흥목회 세미나'

강사



전태식 목사
(아바드성경연구원 대표이사)

- 아바드성경 관주해설 저자
-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철학박사
- CTS기독교TV 이사
- 순복음부흥사회 28, 29대 대표회장 역임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역임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상임회장
- 사단법인 아바드재단 대표이사
- 현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담임
- 한국교회 셋별처럼 떠오르는 부흥사

일 시: **2019년 1월 15일(화)오전-17일(목)저녁**
(스케줄: 오전 강의, 점심, 오후 강의, 저녁 식사, 저녁 집회)

신 청: 1)당일 신청(오전 10시부터)
2)전화신청: (213)500-8583(양곡교회), (909)784-8986(박인석목사)

장 소: **미주양곡장로교회**
등 록: 등록금100불, (전액 주최측 부담/교재, 점심저녁식사)
특 전: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수료증을 드림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한기훈 목사
(은혜한인교회)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지용덕 목사
(연세아카데미원장, 한기부주대표회장)

주 최: 생명의 양식선교연구원(지용수목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미주(지용덕 목사)
미주 연세아카데미(지용덕목사) 미주양곡교회 세계 선교부

공동주관: 남가주교협(한기형 목사) 남가주목사회(김관진 목사)
연세동문목사회(조종곤 목사) 목사 장로 합창단(백선용 목사)
남가주교협증경회창단(류당렬 목사) 남가주여목사회(회장 정경희 목사)
남가주장로회(회장 김영준 장로)

후원기관: 미주크리스천신문, 미주복음 방송, 크리스찬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크리스천비전

● 발행인 칼럼 ●

몸부림과 매달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몸부림치며 살 수 있다. 무언가 스스로 이루어 해보겠다는 의지의 발로(發露)이지만 기대와는 달리 모양도 나쁘고 결과도 참담하다. 매달리며 살 수 있다.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切迫)의 표현이지만 숙연(肅然)한 모양과 최량(最良)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경에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생의 승부를 건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야곱, 한나, 엘리야, 히스기야, 에스더, 스로보니게 여인 등이 그렇다. 우리 삶의 극명(克明)한 차이는 몸부림인가 매달림인가에 달려있다. 매달림은 기도로 가장 많이 표현된다. 매달림은 매달리는 자의 겸비한 빈손이 요청되고 낙심하지 않음과 포기하지 않음에 그 중요한 덕목(德目)이 된다. 매달림의 강도(強度)는 매달림의 대상을 알면 알수록,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매달림은 신앙의 다른 이름이어서 온갖 냉대와 배척 속에서도 꿋꿋하게 매달렸던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언하셨다.

“Closed” 연방정부 기관 앞에 붙여진 안내문의 타이틀이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연방정부의 섯다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국가적 난제 앞에 정당간의 정치적 야욕(野慾)을 담은 몸부림이 칼부림이 되어 서로를 상하게 하고 결국 수많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히스기야나 에스더 같은 매달림이 그 어딘가에 있는가? 우리는 몸부림의 지도자가 아니라 매달림의 지도자를 보고 싶다. 우리도 몸부림의 교회가 아니라 매달림의 교회이고 싶다.

치킨 집이 있다. 그 이름은 Chick-Fil-A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매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림의 기업정신을 곳곳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매장 입구에도 “Closed”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것은 주일날만 그렇다. 말씀을 따라 주일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매달림에 있어서 교회가 기업에 배워야 한다면 이 무슨 수처인가. 정부의 “Closed”와 한 기업의 “Closed”가 그 의미의 차원을 달리한다면 이 무슨 부끄러운인가.

어두움의 그림자는 몸부림에 스며들고, 찬란한 빛은 매달림에 솟구친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에게 그 빛이 솟구친 것이다. “그가 브니엘을 만날 때에 해가 뜬다고”(창 32:31a) 어두움의 그림자나, 찬란한 빛이나? 같은 몸을 가지고 몸부림 칠 것인지, 아니면 매달릴 것인지에 철저히 달려있다.

kimseungkook@gmail.com

미국경제(과장)...기후변화(간과)...돌이켜 본다!

포린폴리시, 2018년 미국미디어가 과장/간과한 사건소개 통해 2019년 예측

워싱턴발 미디어 버블은 가장 효과적으로 전 지구적 바이블, 즉 급속도로 퍼지는 기사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보도 매체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특정 사건이 과도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묻혀버리는 경우도 생겨난다.

세계 다른 지역의 매체들은 (BBC월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미국 매체가 선정한 기사거리들을 그대로 받아쓰기 바쁘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미디어로부터 끊임없는 관심을 받은 주제는 트

럼프 정부의 혼란스러운 회전문서 인사 정책과 러시아와의 결탁에 대한 혐의였다. 특검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관심이 지나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그 외에도 분명 과도한 관심을 받은 소식과 마땅한 관심을 받지 못한 소식들이 존재한다(Oerrated or Underreported? A look at the stories the media hyped-or largely ignored-in 2018).

과도한 관심을 받은 주제들

미국 경제: 트럼프 대통령의 치어리딩에 맞추어 대부분의 보도 매체가 미국 주식시장의 붐과 낮은 실업률, 기록적인 일자리 생성에 대해 떠들었다. 대법관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을 제외하고 트럼프 정부의 거의 유일한 성취였던 법인세 감소안 가결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적”의 기반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경제 부문의 성과를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적으면서도 “10년 연속 성장세” 가운데



과테말라-멕시코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온두라스에서 떠난 카라반 행렬

사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읽고 싶은 기사였다. 하지만 과연 모든 매체의 1면을 지배할 정도의 소식이었을까?

간과된 이야기들

기후변화: 2018년은 전례 없는 수준의 산불과 가뭄, 허리케인과 홍수로 얼룩진 한 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략”이라고 표현한, 난민들의 탈출이 이어진 한 해였다. 그러나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이 모든 것의 주요 원인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매체들은 중앙아메리카에

과장: 영국왕실 결혼식, 미-멕시코 국경벽, 태국 동굴소년 간과: 중국 우경화, 소년병 인신매매, 이탈리아 반란, 마크롱 추락

8년이 오바마 정부 때였다. 사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웰스트리트에는 오랜 격언이 있다. “경기가 호황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1면을 장식하기 시작하면 그 때가 바로 주식을 팔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한 달도 가지 않아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9년에는 미국 경제가 새로운 대공황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미디어의 호들갑이 예상된다.

영국왕실의 결혼식: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비의 결혼 이후, 전 세계 미디어는 영국왕실의 결혼식에 지나친 관심을 보여 왔다. 둘째인 해리 왕자의 결혼식이 형 윌리엄 왕자의 결혼보다 더 큰 미디어 호들갑을 낳은 이유는 그가 선택한 신부 덕분이었다.

미국 배우 매건 마클은 국적뿐 아니라 인종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다. 영국은 스스로가 포스트 인종주의 시대에 접어들

었다 여기고 싶겠지만, 쏟아져 나온 기사들은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해리 왕자 본인이 분노하며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보도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을 정도였다. 하지만 영국 왕실이 얼마나 시대에 뒤쳐져 있는지를 포함해서, 그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일까?

미국-멕시코 국경의 벽: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그 분이 2015년에 이 이야기를 꺼낸 이후, 국경 장벽은 미디어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아왔다. 문제는 장벽에 대해 논하는 모두가 이것이 일종의 판타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점을 지적하는 매체는 거의 없었다. 이 장벽은 트럼프와 그 지지층을 이어주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끈질기게 이어올 수 있었다.

2천 마일에 달하는 국경은 너무나 길고 지대도 험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모

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2018년 마지막 날까지 매체들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무역 협정에서 나온 이익으로 장벽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지, 새로운 무역 협정이 가져올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규모인지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태국 동굴 구조 사건: 허리우드에서도 나오기 힘든 한 편의 각본이었다. 모든 흥행 요소를 갖춘 한 편의 드라마인 셈이다. 그 모든 끔찍한 헤드라인들

서 미국 국경을 향해 오는 난민이 폭력과 가난을 피해 도망친다고 묘사했지, 이들의 삶을 파괴한 4년간의 가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조차도 기후 변화의 비용이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장벽”이라는 인기 있는 주제에 밀려 미디어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성대학교 제4대 총장 초빙공고

미성대학교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 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총장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총장에 뜻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미성대학교 설립정신에 투철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며 미성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2. 미주 성결교회의 헌법과 미국 연방 교육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복음주의 신앙인
3. 미주 성결교회 혹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로 인수 받은 분, 혹은 미주 성결교회 목사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Letter 2매 이내) 1부
3. 대학 발전 및 운영계획서(Letter 10매 이내) 5부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
5. 혼인관계 증명서 1부

보내실 곳

Rev. Kwang Soo Kim
3018 Hermosa Ave. La Crescenta CA 91214
문의: kwangkim82@hotmail.com

접수 마감

2019년 1월 21일(월) ~ 3월 16일(토)까지 도착 분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일부하여 송부 요망)
2.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미성대학교 이사장 김광수 목사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Z세대에게는 “눈 높이” 로 다가가야 한다!

처치리더스.컴, 차세대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방법 제공하는 대학들 그리고 교회가 배울 점 소개

뉴욕타임스는 학교가 학생들을 대하고 교육하는 방법에 따라 최근 학생들, 일명 Z세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The iGen Shift: Colleges Are Changing to Reach the Next Generation: The newest students are transforming the way schools serve and educate them, including sending presidents and deans to Instagram and Twitter). 결과는 “학생들은 광범위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들의 방식만으로 연결된다.” 이 결과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교육 정책이나 접근이 과감할 정도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다가서야 한다(Colleges Are Changing for Generation Z...and So Should You).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메일도 가끔 읽는다. 이들은 교수나 학장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로 소통하며, ‘SNS로 심을 쉬는’ 세대다. 더 나아가 오늘날은 ‘당연히 모바일 기기나 핸드폰으로, 시간이 될 때’ 음식을 먹고 도움을 받으며, 자신만의 대학 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한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 학습 과정 부감독이 말했듯이 “SNS는 정말로 학생들에게 기술이 아니다.” 그의 말이 맞다. 아이폰이 대학원 시절 나올 때쯤,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하이오 주립 대학 같은 학교들은 아이패드를 제공하며, ‘아이패드 필수’와 같은 과정이 있고, ‘지도와 버스 노선과 같이, 교육계획·성적·일정과 같은 학생 조식을 보여주는 ‘학생 관련’ 특성’ 앱을 개발하고 있다. 맞춤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곧, 이 앱이 개통되면,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입학했고, 어떤 전공을 듣는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소통 혁명이 아니다. 이들은 ‘학문을 좀 더 실무와 직업 관련으로 이끄는’ 교육과정 수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전 세대는 벽 타기나 일체형 부엌을 일했을 수 있지만, 지금 세대는 통합 직업 개발을 원한다. 따라서 근무 시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어떤 언론 교수는 트위터로 출석을 점검하고 SNS로 숙제를 올릴 뿐 아니라, 영상 회의로 ‘질문이 있는’ 10시에 근무 시간을 갖는다. 이메일은 경영 기술처럼,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단순한 지침이다.

학생들이 정말 개인적이며 개인적으로 대하러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주류 학계에 새롭게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온라인 경험에 빠르게 맞춰진 ‘맞춤 분석적’ 세상에서 자랐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을 앞에 놓인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기

를 바라게 되었다. 집단으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정보에 대해 생각하고 나서, 확실히 자신이 바른 정보를 가졌다는 설명’을 좋아한다. 표본을 원하고, 이를 실행하기를 원한다.

유튜브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도구이라는 피어슨(Pearson)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학생들은 고정적 콘텐츠보다 영상을 더 선호하지만, 여전히 문자보다는 눈에 보이는, 면대면 소통을 원한다. 학생들이 실시간 SNS 관계를 늘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못해서 안달이다. 라이트 주립 대학(Wright State University) 코리 시밀러(Corey Seemiller)에 따르면 “학생들은 진정성과 투명성을 원한다. 학생들은 상황 너머에 인간이 있다는 사고를 좋아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다수는 교회나 동료, 교실과 소속의 삶의 응대와 지원에 과중한 짐을 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지만 중요한 지침이 있다:

1. SNS와 SNS를 활용한 기술을 이용해 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이를 통하여 소통하고 알리고 이용해야 한다.
2.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제공해야 한다.
3. 어떤 콘텐츠이든지, 실제적인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
4.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
5. 특히 영상을 이용하여 시각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답변을 들어야 한다.

지금은,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실행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고, 속해 있는 단체와 당장의 학습 욕구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변화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변화의 이유는 알아가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것이다.

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응답을 기대해본다.

상하 의원이 되고 교회지도자가 된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셨다. 이러한 자세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116대 국회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한다.

(1면에서 계속)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기와 맞물린 이번 국회에서는 ‘러시아 스캔들’, 멕시코 국경장벽 등 이민정책, 건강보험정책 등을 고리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간에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결국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상하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기대하게 된다. 한마디로, 누구 앞에서 어떤 일을 하러



시론

상실감을 넘어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부터 새해를 맞는 것이 어릴 때처럼 신나고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확장시절에 맞이했던 새해는 언제나 계급장을 하나 더 붙이고 진급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학년도 한 학년 더 진급한, 그래서 무엇인가 성취감을 얻었던 것이 새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해가 되면 성취감을 느끼기보다 하나 둘 무엇인가 잃어가는 상실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약해져 가는 건강, 하나 둘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가는 친구들 그리고 줄어드는 지갑의 두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삶의 순환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해가 가져다줄 성취감보다 무엇인가 보내거나 줄어드는 상실감으로 인해 마음에 여유를 느끼지 못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위로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상실감이 아닌 성취감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 게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이른 새벽녘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유유히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 같은 존재를 발견한 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때 상대가 자신의 신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죠. ‘만일 지금 자신을 예수님으로 소개한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자신에게 물 위로 걸어 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밝은 곳으로, 혹은 좀 더 가까이 얼굴을 보여 달라고 한 후,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대에게 자신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인지도 모를 그 유령같은 존재를 향해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도록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허락의 말을 들은 후 덤벼 물 위로 뛰어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베드로 스타일의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단히 무모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상대가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상대에게 무엇을 부탁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대

와 멀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가운데 그 상대에게 베드로 자신의 생명을 건 모험을 부탁하고 실제적인 행동에 뛰어 듭니다. 물론 몇 걸음 걸지도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대단히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제대로 맞지 않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날 동안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느라 아무런 믿음의 도전이나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음성 하나 듣고 상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물 위로 뛰어 내렸던 베드로와 달리 우리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과 손바닥까지 다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물 위로 뛰어 내리는 믿음의 걸음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상대를 향해 ‘얼굴을 돌려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제 아침에 함께 먹었던 음식메뉴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오늘 점심 때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평생토록 그렇고 그런 질문을 하며 상대가 예수님이신지 확인만 하다가 인생의 배에서 뛰어내려 과감하게 물 위를 걸어보는 그런 비범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얼굴을 보여주시기 전에 음성부터 먼저 들려 주신 후에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음성 곧 말씀으로 시작해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곧 바로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기쁨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물 위를 얼마 걷지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되었던 그의 출발이 눈앞에 몰아치는 바람으로 초점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몇 걸음 되지 못했던 믿음의 행보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해 보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맞게 되는 새해는 성취감을 가져 오기보다 상실감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는 어쩌면 많은 상실감을 맞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믿었던 건물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인생이 가야할 삶의 과정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실감을 뛰어 넘는 멋지고 아름다운 한 해를 맞이위해서 이 한 해는 ‘너무 제고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시간을 다 쏟아 붓기보다 음성 하나 듣고 과감하게 물로 뛰어든 베드로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비록 걷다가 물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 위를 걸어 보는 기적’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상실감을 넘어 믿음의 성취감으로 채워지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 뉴 이어,
thechoi82@yahoo.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학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한 사람(1)

서기386년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해다. 그 해에 기독교의 탁월한 리더 어거스틴이 흑암의 세력을 깨고 빛으로 방향을 수정한 해이기 때문이다. 그 해에 어거스틴은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영적으로 깊은 번민 중에 있을 때 담 너머에서 들려오

는 아이들의 노랫말을 통해서였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의 양을 부르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신다. 그 아이들의 동요는 들어봐, 읽어 보라는 노랫말이었다. 그 가사에 마음이 움직이며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이 비수가 되어 마

음을 비집고 들어와 큰 생채기를 내었다. 그는 지식이 대단한 수사학 교수요, 철학자이었다. 그런 지성인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동요 노랫말이었으니 말이다. 어거스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에 대하여... 그리고 평생을 지식에 대한 결손을 추구하고 현학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자신처럼 강박하고 스스로 대단한 지성인으로 여기는 자를 넘어뜨린 매체가 어린아이였으니 말이다.

그는 일찍이 마니교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토론하여 밀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 더더구나 그는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 출신이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지금의

튀니지 출신이다. 현재는 살기 위해 낡은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이태리로 넘어오는 사람들이다.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도 베르베르족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어거스틴이 튀니지에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로마로 건너와서 수사학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뛰어난 천재이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밀라노에서 뛰어난 수사학의 교수를 요청하자 로마의 지사는 어거스틴을 천거하여 밀라노의 시 대변인이 되도록 했다. 요즘으로 치면 시의 홍보관 정도가 아닐까 싶다. 당시 밀라노가 로마의 수도였으니 그가 맡은 자리는 대단한 자리일 수 있다. 그리고 그를 가톨릭에서 4대 박사에 포함하고 있다(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제롬,

그레고리). 그는 386년에 회심을 경험한 후 밀라노 시의 대변인 직을 내려놓았다. 정치가들, 특히 변호사는 당시 반드시 수사학을 깊이 공부해야 했는데 수사학이란 말싸움을 잘하기 위한 학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법정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진실처럼 말해야 한다. 그 얼마나 거짓된 일인가!

어거스틴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미련 없이 대변인의 직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친구의 별장에서 몇 개월을 보내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 모니카 여사와 아들도 함께 하였다. 때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서늘함이 포도를 영글게 하는 계절이었다. 저 건너로

코모(Como)의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마도 이 기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같이 방탕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내가 진정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오기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와 성령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것이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돌아오는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영향자가 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한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풍운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신다네. 그러면 마귀는 크게 놀라서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라네."

우리들 안에 남아있던 모든 좋지 않은 과거가 2018년과 더불어 영원히 이사가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둘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를 통하여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과 너희를 낳은 사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사 51:1-2). 우리들을 떠낸 반석과 우리들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기억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동네 형들과 헤엄을 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심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진 일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죽을 수 있었습니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방문하러 케냐에 갔다가 밤중에 폐강도를 만나서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이러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맨주먹 빈손으로 가나안으로 이민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사 창성하게 하신 것처럼 미국으로 이민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오늘까지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절로 감사하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상우씨가 만든 곡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다보면 눈물이 절로 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은 에 위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불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3면으로 계속)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한 독자 여러분들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 일들에 대하여 말씀한 두 가지를 묵상하고 새해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사43:18).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사43:19, 21).

저는 이것을 이전에 있었던 나쁜 일들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와 이전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죄들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과

거 속에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

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들을 묶고 있는 과거의 어두운 결박을 풀어주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43:25).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녀 된 우리들이 과거 속에 살며 힘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이전 일들 혹시 그것이 죄일지라도 기억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2018년과 함께 우리들의 모든 좋지 않았던 일 후 회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

께 도말하여 버리고 새로운 미래 속에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마르틴 루터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루터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응, 사단이 자주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 주신다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하고 물으면 예수님은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이사를 가고 내가 살고 있어'라고 대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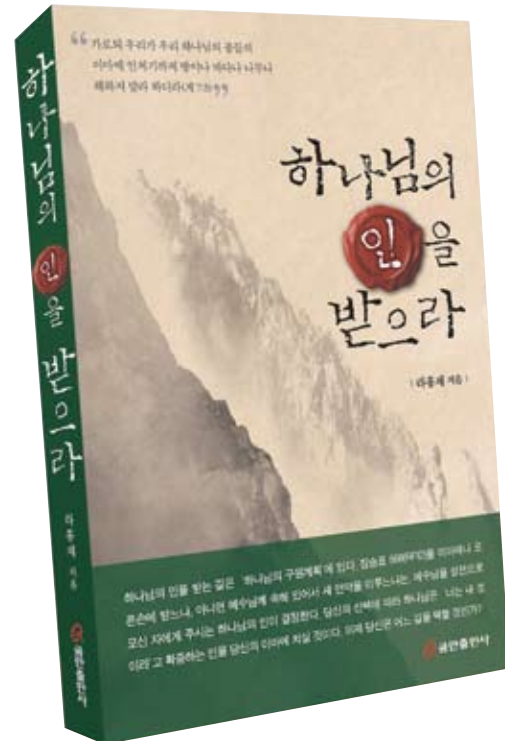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같은 이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혹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므로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신15:15).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새해라는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결단으로 은혜주시기를 기도한다. 무엇을 결심하는가? 무엇보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한해의 인생의 연한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게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며 사모하게 된다.

많은 소유보다 사모할 것
 새해의 결심을 상담하게 될 때,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받고 더 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게 삶을 가꾸어가기를 권고한다. 많은 것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낙심하고 낙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인생의 복을 누리도록 권면하게 된다.

서 숨도 못 쉬도록 한 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한숨 쉬고 낙담할 것 밖에는 없게 된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더 농사의 수확을 얻고자 바알신을 섬기면서 정착민의 농업기술을 배우려 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농업기술을 전수하면서, 최종적으로 우상 앞에 절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거침없이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 오늘 날 표현을 빌리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들의 상식적인 형편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저들이 가장 약할 때, 이웃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거두려했던 바로 그것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잃어가는 것이다.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 이 땅의 그 어느 것 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선 되신 분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개의 부모들은 욕심이 많다. 내가 낳았기에 내 자녀고, 그래서 자신의 눈에 넣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사랑스러워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녀도 인간적인 욕심일 따름이지, 자식과의 사이에도 참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반드시 제거하는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때, 그 자녀가 부모의 삶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재앙거리로 바뀌고, 결국에는 그 자녀로 인하여 고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됨을 본다. 효자가 공부할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소유와 누림, 우상

- 세상, 물질, 자녀

다. 최근 들어 갑작스런 사건 사고로 주변의 지인들이 귀한 생명을 잃는 소식을 듣다보면, 모으고 채우고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님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 언제 주님 앞에 불러갈 지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주안에서 참 행복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더욱 입에서 절로 기도가 터져 나온다. 주여 버릴 것을 속히 버리게 하옵시고, 내 생명의 주인되시는 주님을 더욱 철저히 믿어가는 사역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집을 청소하는 비결은 잘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아무리 쓸고 닦고 하여도 쓰레기로 가득한 집은 오염물의 냄새만 날 따름이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하나님보시기에 약한 것들을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드린다. 느헤미야처럼, 내 문제 내 가정 내 사역 등등 내 문제에 매여서 일회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가는 곳, 주님의 관심이 가는 곳에 마음을 두고 귀를 열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원하는 것 나도 원하고, 주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것이면 목숨 걸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구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를 말한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 왜 이것으로부터 마음을 떼어 놓아야 하는가? 결국에는 잘 되기를 바라며 섬긴 그 우상이 나와 주변을 망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이 오히려 원망과 탄식이 됨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곧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고, 나의 인생을 그 복 없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우상들이라 관리되지 못한 물질과 절제되지 못한 자녀사랑에 대한 생각들이다.

관리되지 못하는 물질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상시 될 만한 것이 물질이다. 돈이다. 사람들은 돈으로 표현되는 물질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섬기는 것에도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무엇인가? 물질의 그 수고로움 앞에

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영화를 보고자 할 때, 얼마나 허망해진다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본다. 가장 목마르고 가난하며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사람을 울려 보내서 그들을 토지소산을 멸해버리도록 하신 것이다. 양이나 나귀나 소까지도 다 쓸어가 버렸다. 농사 잘 지어보려고 우상도 찾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불뚝처럼 한 그것을, 한 순간에 치워버리시는 것을 보게 된다. 왜 하필 그때인가? 영적인 해석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소홀히 하며 내어버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정확하게 보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며 세상 앞에서는 타협하고 무릎 꿇는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전락하게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의 정확함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축복과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결국에는 그토록 하나님 없이 잘할 것 같은 일로 인해, 오히려 더 비참하게 털려버리고, 다 빼앗겨 버린 채 없을 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을 본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자신이 수고하여 농사를 지었음에도, 포도 주 틀에서 양식을 구하며, 산의 구멍과 토굴에서 겨우 연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힘써 수고하며 땀 흘려 거둬들인 내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인생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돈이 참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 내려놓을수록 주님이 채우시고 갹아주시고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과 방법이 가장 선하고 온전하다.

또 다른 소유, 자녀

물질과 더불어 우리마음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격정과 염려들이다. 자신과 주변에서 하나님보다 자녀사랑이 더 큰 경우가 많음을 자주 보게 된다. 이인생활과 돈 버는 모든 경제활동의 목적도 자녀에 집중되고 그 마음이 온통 자녀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본다.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잘하면 가문을 빛내지만, 불효자가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 명성을 잡는다는 원리와 같다. 인생의 기본기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할 때 결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없음을 목도하게 된다. 부모의 욕심이 한순간에 쏟아 부은 물과 같이 녹아내리는 것이다. 문제는 마음과 함께 영적인 힘도 함께 녹아내리는 것이다. 자식의 속적임은 평생 부모의 한이 된다. 그런데 그 동기는 부모가 제공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았겠는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의 제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이스마엘도 아들이니 바치지기도 했을 법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게,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식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팔심육세부터 구심구세까지 13년간 만나주지 않음을 본다. '애나 보라'는 뜻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스마엘을 키우는 그 십삼년의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세월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를 그냥 두지않으시고 정말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믿음의 조상됨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를 테스트하신 것이다. 그래서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동시에 축복하시며 번제할 양을 준비해주시는 것이다.

우상 노릇하는 자녀들을 교회 앞으로, 말씀과 성령 앞으로 내려놓아야 한다. 날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녀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신앙을 가져가면 좋겠다. 관리되지 못하는 물질과 절제되지 못한 자녀들이 우상 노릇할 수 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결단하여 기도함으로, 새해를 주님의 마음과 꿈과 소망을 품은 한해로 승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다.

davidnj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모태 교인입니다. 올해도 다 지나가는데 자신을 돌아보면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할 줄 알면서도 태만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성경을 하루 최소 3장 읽기를 결심해봅니다. 읽은 성경을 어떻게 내 자신과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하버에서 Lee

A: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공(major)은 성경입니다. 신앙과 삶의 매뉴얼(manuel)이 되는 성경을 익히 알아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Mirror, 즉 거울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window, 창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거울로 사용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짓궂은 친구가 잡자는 친구의 얼굴에 수염을 그리고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 친구가 일어나자 모두가 다 폭소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왜 그러는가 싶어 그 친구는 나중에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볼 때 자신의 영적 실상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악과 교만과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읽

거울과 창을 통한 성경읽기로 바른 세계관 갖도록

어야 자신의 영적 실상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성경을 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창밖의 사물과 사람들을 보듯이 우리는 성경의 창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 시사뉴스를 분석하고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올바르게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잘한 것 몇 가지를 보면 그는 얼마나 깊은 신앙인인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는 성경적 시각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happy Holiday를 "Merry Christmas"라 칭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 후에 월마트나 맥도날드는 메리크리스마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창으로 오늘의 세속 문화를 과감히 바꾼 바른 결정입니다. Happy Holiday는 오바마 대통령이 친 이슬람 정책을 펴면서 미국에 사는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싫어하기에 이슬람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성탄은 그리스도가 온 계절이라고 과감히 바꾼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의 수도인정 -아랍권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2017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때가 되었다면서 미 대사관도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나 그는 3000년전 다윗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은 예루살렘을 661년, 신약은 156년을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7월 14일 UN을 통해 이미 독립국가로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6일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온 세계가 반대했습니다. UN도 영국도 프랑스도 온 중동나라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담대한 선포로 70년 만에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122편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다"라는 이 말씀의 창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에 복을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의 창으로 예루살렘을 본 사람입니다. 약간 그가 거칠고 엉뚱한 면이 있으나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성경을 창으로 사용하는 시각을 가진 용기 있는 지도자입니다.

(2면에서 계속)

그리고 UN과 세계 각국은 이런 미국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우경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40년 간 신중한 계획 하에 진행돼온 자유화의 물결을 되돌리고 마오쩌둥이 되려 한다는 사실에 언론이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얼마나 위협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진핑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청소와 시민사회 탄압을 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개혁파처럼 보일 지경인데도, 거의 모든 매체는 잠잠했다.

소년병과 인신매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에 대해 백악관이 취했던 무신경한 태도에서 드러나듯,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인권문제 진전 없이는 큰 타격을 입었다. 어린이들을 살인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소년병 방지법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콩고,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11개국을 위협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에는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면제권을 부여하면서 7개 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반란과 마크롱의 추락: 지난 한 해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브렉시트 관련 소식이 유럽면을 장식했지만, 이탈리아 좌파 정부와 EU간의 불화,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추락이 어쩌면 더 중요한 뉴스였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브렉시트 뉴스에만 집착했다.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보듯, EU를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유럽의 우파가 계속해서 부상 중인 상황에서 어떤 뉴스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결정하기란 꽤나 어려울 것이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산한 한족(화교)



17개의 한족 화교의 통합 프로젝트인 중국 한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족집단으로 그 수가 12억에 이른다.

(Cantonese), 호키엔어(Hokkien) 등 다양한 중국 방언들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 방언들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큰 종족집단으로 그 수가 12억에 이른다. 그들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오늘날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삶의 모습

이주한 중국 화교들은 주로 도시에서 살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서구화된 국가들에서 주로 사업가로 활동한다. 그들의 사업 범위는 작은 상점에서부터 국제적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목의 대상이 됐다. 왜냐하면 화교들이 공산당의 중국 본토 장악을 지지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 관료들은 한족들이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도 공산혁명을 지지할까봐 염려했던 것이다.

기는 체면("saving face") 때문이다.

신앙

화교들은 대개 여러 철학들의 혼합형태로 특징지을 수 있는 자신들의 전통 중국종교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시간을 거둬들이고 불교, 유교, 도교적인 부분들도 섞었다.

던 사람들의 혼령으로 인식하면서 이런 선한 혼령들은 자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영적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화교들은 때때로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멸시를 당하기도 한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반화교(anti-Chinese)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2019년은 세계경제가 고통 절감하는 해"

미·중 무역 전쟁의 후유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018년 미·중 양국이 벌인 무역전쟁의 해였다면, 2019년은 세계 경제가 그 고통을 절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25일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로 교역량 감소와 수요 위축, 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카메라·드론 제조업체 고프로는 우선 내년 여름까지 중국 내 생산기지 대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다.

미국 카메라·드론 제조업체 고프로는 우선 내년 여름까지 중국 내 생산기지 대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다.

미국 카메라·드론 제조업체 고프로는 우선 내년 여름까지 중국 내 생산기지 대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다.

미국 카메라·드론 제조업체 고프로는 우선 내년 여름까지 중국 내 생산기지 대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다.

미 법원, '성 불편증'은 트랜스젠더' 군복무금지 찬성

일부 트랜스젠더들이 미군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법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른 군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의 군 복무 금지 정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성 불편증'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동성에게 이성의 감정을 가지며, 자신과 반대되는 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모든 트랜스젠더가 성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을 통해 일부 트랜스젠더들은 정신·신체적 기준에 따라 군에 복무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교회 다니는 어린이 우울증·자살 위험 적다"

어린이나 청소년 자살이 잇따르는 미국에서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일수록 우울증이나 자살의 위험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아동 및 가정 심리학자 제시 길(Jesse Gill) 박사는 최근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나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자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길 박사는 "현대 기술의 발달은 인간 두뇌 신경회로나 집중력 등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자녀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 기술을 멀리하게 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교회를 나가라는 것이다.

길 박사의 조언은 이미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됐다.

CBN뉴스는 11월 발표된 '2018 미국역학저널(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도했다.

결과를 신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자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309명의 5-12세 어린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엘라베마 주에선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 받던 9살 소녀 맥켄지 애덤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안겼다.

이라크, 성탄절을 국경일로 공식 지정

이슬람교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가 성탄절을 국경일로 공식 지정했다. 이라크 CNN 방송이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이라크 내각은 성탄절을 일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이라크 전체 국민이 쉬는 휴일로 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라크 정부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기독교인 시민들과 모든 이라크 국민, 그리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전 세계인에게 기쁜 성탄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때까지 이라크에 살던 크리스천은 140만명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 후 내전이 이어지면서 대거 국외로 떠나 3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대로부터 기독교인 마을인 바르텔라에서는 IS로부터 해방된 뒤 처음으로 2016년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렸다.

미 세속주의·무종교인 는다더니...

미국의 대표적 청년 집회인 패션(Passion) 콘퍼런스에 4만 명이 모여 신앙 열정을 불태웠다. 미국에 세속주의와 무종교인이 증가한다는 일부 지표가 무색할 정도다.



8일 패션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델러스 애틀랜타 워싱턴DC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4만명의 대학생과 청년이 참가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패션뉴스는 패션의 홍보 담당인 브래드 존슨의 말을 인용, "콘퍼런션에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의 이름 아래 청년들이 모였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세대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을 확인하는 집회"라고 보도했다.

패션은 1997년 루이 기글리오 목사가 창립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8절 말씀을 기초로 젊은이들이 주를 기다리며 주를 기억하고 영혼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데서 출발했다.

참가자들은 콘퍼런스에서 44만8000달러를 현장에서 모금, 멕시코 이집트 남수단 미얀마 필리핀 일본 러시아 등 16개국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성경 번역 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패션 콘퍼런스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부활동을 해왔다. 2012년엔 '현대판 노예' 근절을 위해 330만 달러를, 2015년에는 노숙인에게 타월과 양말 2만장을 후원했다.

눈길 끄는 대형 십자가는 어디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는 지난 22일 새예배당 봉헌예배를 드렸다.



예배당 앞에는 40m 높이의 대형 십자가상이 세워져 웅장함을 더했다. 군선교연합회 관계자는 1일 "군 선교의 요람인 이곳 훈련병들이 어디서든 십자가를 보고 예수 사랑을 알도록 국내 최고 높이의 십자가를 세웠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기도를 형상화해 높이를 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높이 십자가는 스페인 '전몰자의 계곡(valley of the fallen) 십자가'이다. 화강암으로 된 이 십자가는 기초를 이루는 언덕을 포함해 높이가 150m에 달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십자가는 필리핀 바탄주 필라 마을의 사마트 산 정상에 조성된 92m 높이의 '기념 십자가'이다.

세 번째는 칠레의 코킴보 언덕 '제3000년(the third millennium) 십자가'이다.

네 번째는 레바논에 있다. '열방 십자가'(Cross of all nations)로 불리는데 십자가가 73.8m이다.

다섯 번째는 마케도니아공화국의 '1000년 십자가'로 높이가 66m다.

이어 6위는 미국 플로리다주 '성 오거스틴 대십자가'(63.4m), 7위 일리노이주 '십자로(路)의 십자가'(60.3m), 8위 텍사스주 '세이지몬트 십자가'(51m), 9위 같은 텍사스주의 '신부 십자가'(50m)이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66. 조득린 목사(1864-1943)

조득린은 평남 영원에서 태어났으나 서울 태생으로 알려져 있다. 1910년 국민회 할빈 지방회 보고에 따르면 그는 1864년경에 태어났고, 72명의 석두하자 지방회원 중 한 사람이었다.

조득린은 1915년 7월 23일에 만주리아 선편으로 정덕근과 송승균과 함께 미국의 상항(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 곧바로 하변(리버사이드)으로 이동한다.

그는 그해 9월 16일자 신한민보에 "한국 현시 정황"이라는 글을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한국 상황을 전한다. 본 기고문은 총독부의 사정, 인민의 정도 그리고 종교계의 형편 등 3가지로 나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총독부는 한국 백성의 한국 혼을 박멸하고 일본 정신을 고취하는데 이는 악독한 압제보다 더욱 매서운 것이었다. 예를 들면 각 군과 각 면에 조직한 민풍 개선 하에 경찰과 도로 수축, 야순 경찰 선출 등 재정 보조 없이 한국인 스스로 하도록 하였고, 여자 15세 이상과 남자 18세 이상으로 결혼 연령을 정하였으며, 사립학교 자격을 기본급 1천원 이상, 생도 50명 이상, 교수실 10칸 이상, 운동장 3백평 이상, 교사 4인 이상으로 하고, 학과 정도는 보통지식에 국한하여 군 주사나 헌병 보조원의 자격에 제한하였고, 총독부 지정 교과서를 사용토록 하였다.

조득린이 말하는 인민의 정도는 한국인은 독립사상이 있고 노예근성이 없다.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산업이란 농사뿐인데 이마저 어려워 서북간도로 이주하는 자가 매년 3, 4천 명에 이르렀다. 상업의 경우 평양 거리에서 상점을 하고 중상을 하는 자의 10분의 8이 관청에 의해 영업금지령을 받았으니 전국적 상업 현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종교계의 형편에 대한 조득린의 주장에 따르면 유교는 아주 없어진 모양인데 서울에 공자교가 따로 조

직되었고, 단군교가 설립되었고, 동학은 일진회로 변했다가 시천교 혹은 천도교로 불렸다. 기독교인은 30여만 명에 이르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평양에 대학을 건축 중이었으며, 일본인이 제일 성가시게 생각하는 종교는 기독교였다.

하변 교회 목사

도미한 그 다음 해인 1916년에 조득린은 자비광으로 하변 교회를 섬긴다.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순회전도사였던 방화중 전도사의 지도

하에 있었다. 그해 그는 국민회 하변 지회 학무원을 맡았는데 그 임원의 대부분이 하변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회장에는 이학현, 부회장에 정지영, 총무에 안영일, 서기에 최윤호, 재무에 박성민(?), 법무원에 김순학, 구제원에 박중섭, 대의원에 문영운이었다.

그런데 그해 3월 5일에 그의 학무원직을 김희준이 대신했음으로 이전에 하변을 떠났으니 그의 목회는 3달이나 되었을까? 그런데 그가 곧바로 하변으로 돌아왔고, 이듬해 하변 지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성 성경학교

1917년 1월에 조득린은 유타주 칼렌드로 이주하여 서대현과 함께 40에이커의 땅에 참외 농사를 하였다. 그해 가을에 그는 거주 사도(새크라멘토)로 이주한다. 1918년에 그는 본 지방의 국민회 학무원을 맡아 그해 9월에 국치 제8년의 기념식을 거행할 때 기도과 연설을 맡았다. 그런데 그

해 나성(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예수 탄일 경축이 성황이었을 때 그가 기도순서를 맡은 것으로 보아 나성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1919년 7월 한인 유학생 조사에 따르면 그는 나성에 있던 성경학원 성경과에서 공부했다. 당시 김재성도 그 학교 학생이었는데 오늘날의 바이올라 대학이다.

오마하 장로회 신학교

1919년 8월 14일에 조득린이 네바다 주의 오버톤의 국민회 파출소 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듬 해 오마하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923



하변 교회 예배당 (연도 미상)

1920년 오마하장로회신학교 입학 3년후 졸업, 해외선교사로 한국행

1926년 멘티카 한인교회서 1년간 시무, 유학생 신분 때문에 숨기도



멘티카 한인교회 예배당, 1918년

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신학교 재학 중에도 신한민보에 기고하는가 하면 인근 미국 교회에서 한국을 소개하였다. 1921년 2월 24일에 신한민보에 소개된 아래의 "하도원의 열심 전도"는 그의 기고문이다: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류하는 조득린 씨의 본월 5일 통신을 의지한즉 수년간 미주에 유하다가 얼마 전에 환국한 하도원 씨는 지난 예수 성탄 시기에 평양 서면 남형제산면 천동교회에 부흥회 전도일을 맡아 한 주간 열심히 전도하였으며 이적으로 어려운 병을 고친 일까지 있었고 본

시 평균 500명씩 출석하던 교당인데 하도원 전도사의 부흥회를 지난 후부터 천여 명이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출석한다 하였더라."

1903년에 내한하여 1919년까지 평양과 재령에서 사역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해리 C. 파이팅 선교사가 1921년 12월에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한인에 대한 너무나 참혹한 학살을 저지른 일본을 규탄하였다. 이에 조득린은 고마움을 표하는 기사를 신한민보에 게재하였다.

그에 따르면, 파이팅 선교사가 한 주일 동안 여러 교회와 학교에서 강연하였다. 지난주일 제3장로교회 아침 예배와 제2장로교회 저녁 예배에서 본 선교사는 한국 역사가 4,254년이고,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면서 한국 지형은 엄지손가락과 같은 반도이고, 한국이 잠수함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발명하였고, 종교와 도덕과 문학에 있어 일본보다 앞섬을 말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 황제는 헤룻왕으로 한국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로 대비하면서 일본이 아편 주색 등 추악한 물건을 한국에 수송하고 한국 교회와 민족을 멸절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교회와 한인의 독립사상은 더욱 공고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인과 세계는 권세를 탐하지만, 미약한 한국민을 택하사 교회를 그곳에 세웠으니 여러분이 한국을 돕지 않으면 한미조

교할 예정이었다. 이에 신한민보는 한인들의 출석을 독려하고 그의 고상한 언론을 들어야겠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달 11일에 조직된 16명의 민립대학 발기인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올랐다. 민립대학 후원회 취지서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계몽운동의 제일선에 들어서 신문화 주의를 제창하고 미래 우리 자손의 정신적 운동의 토대를 닦으려는 가장 원대한 이상을 달하리라는 포부"를 가지고 "반만년 장유 문화를 계승하고 세계적 공통 문화를 집대성하여 우리 근역에 독특한 신문화를 건설 하자는 철학적 운동"이었다.

조득린은 1923년 7월 12일에 '프레지던트 클리브랜드' 선편으로 북가주 윌리엄스에 거주하던 박용성의 부인과 그녀의 두 자녀와 동반했다. 귀국 소식을 전한 신한민보는 그가 조선의 모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1926년 샌프란시스코 입항 서류에는 그가 목사가 아니라 교사로 사역했고, 서울에서 거주했음을 밝힌다. 그의 서울 체류는 3년간이었다.

멘티카 한인교회

조득린은 1926년 5월 4일에 상항에 도착했다. 그해 8월 19일에 상항에서 개최한 미국 남장리교 연회에서 그는 전도사 증명을 얻어 멘티카 한인교회를 섬긴다. 본 교회는 1920년 이후 4년간 모일 사람이 없어 폐쇄하였다가 1924년 7월 13일부터 다시 예배를 보기로 하고 25명이 모여 임정구 목사가 인도한 후 조득린 목사가 부임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민국 사건으로 1927년까지 약 1년간 목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해 5월 5일자 신한민보에는 미국 이민국에서 그를 체포하려고 사방으로 수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작년(1926)에 입국할 때 그의 신분은 유학생이었는데 목회를 하고 있음을 안 이민국이 학교로 돌아가라고 누차 경고를 하였지만 계속 목회를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1931년 11월에 조득린은 중가주 리들리에서 별세한 김재순의 장례비로 50전을 기부하였다. 1942년 2월에 독립금으로 5원을 기부하던 그해 3월 1일에 개최한 나성 삼일절 경축 대전례에 그가 달라노 대표로 참석했다.

조득린은 1943년 4월 11일 상오에 향년 79세로 소천하였다. 2, 3주 전에 신병을 얻어 나성 공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부름에 어쩔 수 없었다. 그의 후사가 적어 그를 아는 사람은 그를 위하여 애석히 여겼다고 한다.

damien.sohn@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성경도 신앙 (69)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다)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정부를 인정해야 한다. 또 그 형태가 어떠하든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법으로 정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 정부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치룰 때, 적극적인 수행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정말 더러운 게임과 같다고 회피한다. 이렇듯 깨끗하지 못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려면 이 로마서 13장의 문맥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의 대통령, 행정관, 주지사...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딤후2:1). 무엇 때문에 왕이나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

통을 통제하며, 배수와 상하 수도를 관리하고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는 일 등이다. 그런 문제들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들도 아니라 중립적인 문제다. 공공의 건강이나 법이나 질서의 입장에서, 또 도로를 바르게 활용하고, 도로 표지판을 잘 보고 대로의 규례를 잘 지켜 나가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든 비 그리스도인이든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든 일에 관계되어 있고, 또

국가와 정부 인정하고 권세자들 위해 기도하며 순종해야 정부가 하는 일, 경제, 정당 등은 선악 아닌 중립적 문제

한 정치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지방정치든 나라 전체를 위한 중앙정부 정치든 전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감상주의적이고 피상적인 방식일 뿐이다. 이런 자세는 모든 문제를 성경에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바르게 살펴 생각하지 못한 증거다. 어떤 이는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한다. 그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성경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고후6:17)라는 말씀이다.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자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섞일 수밖에 없으니 정치나 정부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본문을 구실로 삼아 인용한다. 그러나 그 같은 식으로 큰 소리로 고함치며 외치는 사람들이 매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아주 자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자기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해서 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던

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4절).

하나님은 왕들과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권세의 지위에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사람들이 서야 한 다는데 대해 우리는 분명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 사 이의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속임수이다. 그리스도인은 육체 가운데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는 제한이 있지만, 국가와 권 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르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경 적인 입장이다.

- 3) 중립적인 문제들
- 가) 정부가 무엇에 관여하고 있는가?
- 강도와 절도를 방지하는데 관여하며, 질서를 지키고, 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 국가의 경제적인 이슈 들은 어떠한가?

이것도 영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지만, 매우 중요 하다. 그런 문제를 잘 다루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만, 만일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으로서 우리 의무는 이런 것 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이다. 그런 일들이 가장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다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

지방 정부나 중앙정부나 삶의 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가능한 한 문명화한 삶을 영 위하도록 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함을 우리는 인식한다. 우리는 그런 점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이런 중립적인 문제들에 관련되기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에만 주력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정부에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가? 세상은 육적인 것이고 우리는 영적이기 때

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경제 문제에 대해 한 가지 관점만 가진 것이 아니다.

다) 정당에 대한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할 때, 사실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나라들에는 기독교 정당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가르침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일 될 수가 없다. 다른 이슈들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자유당에도 그럴 수 있다. 정당에 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영적인 관점도 아

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룰 필요도 없고 마음이 나뉘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 데 감정에 따라 나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점의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 권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거의 모두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왕이나 여왕이나 수상과 같은 높고 존귀한 위치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스도인 중에 왕이 될 수 있고 여왕이 될 수도 있고 수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직무를 감당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자신들의 영혼의 잘됨과 진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로마서 13장의 첫 일곱 구절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이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서시력대학교 교수)

새해맞이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는 새 것을 좋아한다. 어릴 적 동요 중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새 신을 신으니 기분이 좋아서 머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을 노래한 것 같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것이 주는 신선함과 새로움에 포함된 가능성 때문에 새 것을 좋아하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온고지신이라는 한자어처럼 옛것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없으면 새 것을 알 수가 없다.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지난간 것에서 교훈을 삼아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해에 미흡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해를 계획한다.

한 해 동안 실천하고 싶은 것을 적으며 새해결심을 하기도 한다. 우리 집 강아지도 새해를 맞아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데려간 이후로 좁은 아파트에서 종일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며 누워있었다 보니 완전 돼지 강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강아지가 자기 건강을 위해 살을 빼야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당근, 사과 등 야채종류를 제외하고는 절대 간식을 주지 말 것 등을 주인인 아들이 결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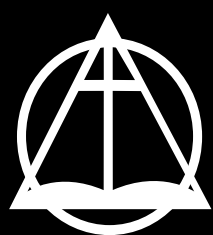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 마지막 주일에 새해에는 일년에 성경을 일독 이상 하자는 취지로 성도들을 독려하였다. 일독 이상 하겠다는 성도들은 그 결심을 종이에 적어내었다. 목사님께서는 “작심삼일일 텐데...”라며 새로운 결심을 망설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다 보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격려했다.

목사님이 한 말은 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어떤 목표를 향해갈 때 너무 큰 목표달성은 어려워 보이지만 큰 목표를 작은 목표 여러 개로 쪼개서 한 단위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큰 목표달성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일 동안만 잘해보자고 마음먹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3일 동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테니 그렇게 3일마다 새로운 결심을 한다면 일년에 성경일독이라는 만만해보이지 않는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보다는 지난간 것에 머무는 경향이 더 많은 사람이다. 정들고 아끼던 것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성격이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 연필이 닳아서 몽당연필이 되어 버리지 못하던 기억이 난다. 새 연필이 있어도 그동안 사용하며 정들은 몽당연필을 버리기가 어찌 미안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특별히 신년계획을 세운 다든지, 새해결심을 하지 않은지 꽤 오래 되었다. 새해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기보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한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된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새해의 경계선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매일, 매 시간을 그 분과 함께 동행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지난간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 하는데 이전 일을 기억한 다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며 과거에 얽매어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12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9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9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9.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9)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7(Fri)-20(Mon), 2019
- 2) Place: HILTON LOS ANGELES AIRPORT, US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Ezekiel 36:22-31
- (2) NT Exegesis Text : Hebrews 2:1-13
- (3) Thesis Topic : Evaluate "Replace Theology" in the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 (4) Sermon Text : Matthew 28:16-2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hanrev@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9.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9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9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3r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19).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0, 2019 HILTON LOS ANGELES) through Rev. Jae Hyun Han.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Jae Hyun Han / Address: 1173 Elm Ave, Seaside, CA 93955 U.S.A.
Cell : (831) 920-7043, E-mail : jhanrev@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702) 296-9193 drjho@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김재열 목사

서기: 권혁천 목사

고시부 부장: 조용철 목사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

투/고/칼/럼



이수영 목사 (뉴욕 등대교회)

2019년을 맞으며

J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 행사에 초대받아 다녀 온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데, 그 곱던 단풍은 다 어디로 가고, 앙상해진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이 이제는 우리가 한 겨울에 살고 있음을 알립니다. 교회의 일할 사람을 세우는 임직식을 겸해 열린 창립기념주일치고는 좀 특별하기는 했

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추억을 되살리게 했던 언덕위의 아름다운 예배당, 푸른 눈의 목사님들이 교단과 교회를 대표하여 전하던 따스한 축하메시지,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하는 교회란'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거듭난 체험이 반드시 있느냐? 가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 힘주어 설교

하시던 설교자의 묵중한 메시지, 그리고 여성 목사님 특유의 섬세함으로 잘 준비된 식탁 등등...

마약 중독으로 흡리스가 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치료한 후, 재활을 돕고 본업인 플러밍 기술자로 제 삶을 찾게 하였던 일, 뇌수가 코로 새어나와 목숨을 곧 잃을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를 성경공부와 기도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게 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하였던 일 등은 교회설립 20주년의 세월이 그냥 채워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뜬구름 잡기가 아닌, 작은 씨앗 속에 숨겨진 하늘나라의 비밀을 밝혀온... 한뼘 한뼘 웃을 김는 것과 같은 목회예술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 날 입었던 목사님들의 아름답던 스톨의 문양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렇게 아름답고 따스하게 진행되었던 예

배와 기념식, 그리고 잘 살아 보겠다고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오히려 날아가 버린 꿈과 어긋났던 사람들의 삶을, 신앙을 통해 회복 시켜주고 희망의 심지를 다시 돋우어 주었던 이야기들보다, 제게 있어 정말로 그 행사가 특별하게 보이게 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목회의 안정적이고 빛나는 시기들이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역사 20년의 기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음을 저는 주목합니다.

목사님이 전에 사용하던 예배장소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기고 나서 얼마 후 나오던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나중에는 목사님 혼자 남게 된 적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혼자남아 3년을 미국교회에 출석하며 그냥 빈 교회당을 지켰다면...?

저는 그 시기의 쓸쓸했음에 주목합니다. 그 시기의 외로웠던 추억, 그 시기의 낮아진 자

존감에 주목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장장 3년을 가파른 언덕 어긋났던 사람들의 삶을, 신앙을 통해 회복 시켜주고 희망의 심지를 다시 돋우어 주었던 이야기들보다, 제게 있어 정말로 그 행사가 특별하게 보이게 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목회의 안정적이고 빛나는 시기들이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역사 20년의 기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음을 저는 주목합니다.

목사님이 전에 사용하던 예배장소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기고 나서 얼마 후 나오던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나중에는 목사님 혼자 남게 된 적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혼자남아 3년을 미국교회에 출석하며 그냥 빈 교회당을 지켰다면...? 저는 그 시기의 쓸쓸했음에 주목합니다. 그 시기의 외로웠던 추억, 그 시기의 낮아진 자

낸 기도, 그 시기의 견뎌내지 못했다면 20주년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감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그런 오래 참음의 가르침을 실천해 낸 목사님의 순종에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지금도 어디에 자랑할 만큼 교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다져짐 위에 서있는 교회이기에 이제는 어떤 풍량이 온다 해도, 와도 잘 이겨내며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힘 있게 찬양하는 청년 찬양 팀을 통해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크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끼치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요즘이지만 목사님의 교회는 여전히 이민사회에 빛을 비추어주는 안식처로 존재할 것입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sy11365@gmail.com

필라교협 신임회장에 김성철 목사

제39회기 정기총회... 신년하례 1월 6일 안디옥교회

대필라델피아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철 목사) 제39회기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1일 성도교회서 열려 신임 회장에 김성철 목사를 선출했다.

이번 교협은 기존 실행위원 제도를 없애고 각 분과위원장들이 겸해 맡았으며 목사회 회장과 장로회 회장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 선임된 임원 및 27일 발표한 조직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성철 목사(예수장로교회) △제1부회장 조병우 목사(필라델리아연합감리교회) △제2부회장 오충환 장로(성도교회) △총무 정인원 목사(성도교회) △서기 박정호 목사(필라한인침례교회) △회계 김용기 장로(몽고메리교회) △각



필라교협 제39회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 강승호 목사, 최승찬 장로(영생교회), △각 분과위원장 및 실행위

원: △신학 박승배 목사 △대내 이대우 목사 △대의 최해근 목사 △조국통일 고택원 목사

△정보통신 김성준 목사 △홍보 한상경 목사 △음악 박도성 사관 △청소년 박성일 목사 △체육 김근 목사 △평신도 이광호 장로 △재정 오충환 장로 △각 분과자문: 교협 증경회장.

한편 필라교협을 중심으로 2010년 1월 교계 행사는 다음과 같다.

△신년예배 및 하례회: 1월 6일(주일) 오후 6시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식사 후 △한국과 미국을 위한 특별기도회: 필라목사회(회장 김영천 목사) 주최로 1월 8일(화) 오전 10시30분 필라교협, 필라장로회, 남부뉴저지교협, 필라원로목사회 공동주관, 예배 후 진폭 불링 대회 △원로 목사회 신년하례회: 1월 7일(월) 블루벨한인장로교회(담임 조정철 목사) △구정잔치: 필라목사회 주최로 2월 5일(화) 오전 11시 CLC교회(담임 황삼열 목사). (기사제공: 필라교협)



미주성결교회 LA지방 동감찰회 회원들이 신년하례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 LA지방 동감찰회 신년하례회

미주성결교회 LA지방 동감찰회(감찰장 김희창 목사) 회원들이 신년하례회로 1월 3일 오후 7시 용수산에서 모여 성결운동에 대한 근본 이해와 회

원전교와 활동보고를 하고 신년인사를 했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LA지방 동감찰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2월 정기예배 및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새 회장에 이종명 목사

정기예배 및 총회... 사역, 회계 보고 등 2018년 마무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12월 정기예배와 함께 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이종명 목사를 선임했다.

신임회장 이종명 목사는 "기아대책 처음부터 뒤에서 일해 왔는데 회장은 새삼스럽다"며 "여러 회원들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믿고 역량껏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예배는 이종명 목사 인도로 기도 안경순 목사, 특송 안경순 김사라 목사, 설교 전희수 목사, 합심기도, 축도 박이스라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감사로 매듭을 지으며..."(요11:39-4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난 8년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임원으로 섬기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덤에 찾아가 감사를 드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첫째, 과거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둘째,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셋째,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볼 때 감사하라"고 역설했다.

전 목사는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

보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회원들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유상열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돼 사역보고 전희수 사무총장, 감사보고 이종명 목사, 회계보고 권금주 목사의 순서로 이어졌다.

동 기구는 아동결연과 일반회비를 나눠서 회계한 결과 △아동결연: 수입 30181.32달러, 지출 24218.50달러, 잔액 5962.82달러 △일반회비: 수입 31366.72달러, 지출 28754.68달러, 잔액 2612.04달러로 보고했다.

아동결연은 현재 북한,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트디부아르에 98명과 후원 대기아동 11명이 있으며 한 아동 당 한 달 결연비용은 30달러다.

또 아동결연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역으로 지난 10월초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쉼라 선교지 방문과 11월 말 후원자의 밤을 보고했다.

회장선거는 전희수 목사의 추천으로 이종명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월 정기 및 시무예배는 23일(수)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장소는 미정.

(유원정 기자)



임마누엘침례교회 최영호 목사안수식에서 안수식이 마친후 최목사와 가족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임마누엘침례교회 최영호 목사 안수식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가주 하일랜드 소재 임마누엘 침례교회(담임 벤 스카우 목사)는 최영호 목사 안수식을 6일 오후 5시30분에 가졌다.

최영호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해왔던 교회라 목사가 돼도 사역에 대한 변화는 좀 더 책임감 갖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리더십 한사람 한사람이 저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는 거 같아 감사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에 또한 감사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울러 목사의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벤 스카우 목사 집례로 열린 안수식은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가 있었으며, 지난해 말로 은퇴한 랍진 목사가 20년 이상 본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자들을 위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벤 목사가 이날 목사가 되는 최영호 전도사와 안수집사가 되는 필립 못하트 집사에게 문답을 했으며 문답이 마친 후 회중들이 목사와 집사로의 안수를 허락했다. 이어 벤 목사가 두 사람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으며, 최 목사와 필립 집사가 간증했다.

또 본 교회 목회자와 안수집사들 20여명들이 한사람씩 나와 최 목사와 필립 안수집사 부부에게 축복기도를 했다. 이어 성찬식을 가진 후 벤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최영호 목사는 호주태생으로 게이트웨이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최 목사는 서울 상도장로교회 최승일 담임목사와 방경희 사모의 아들이다.

(박준호 기자)



올림픽경찰서 후원을 위한 연례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올림픽경찰서 후원 연례 조찬기도회

신임 패트리샤 샌도발 서장 취임

올림픽경찰서 후원을 위한 연례 조찬기도회가 7일 오전 8시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OBA파운데이션(회장 정창용 변호사), 남가주교협(회장 한기형 목사),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하기환) 공동주최로 열렸다.

브래드 리 변호사 사회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한기형 목사는 "커뮤니티가 올림픽 중심으로 안정되게 돼서 감사하다"며 "신임 패트리샤 샌도발 서장이 취임해 한인사회와 소통하는 관계된 것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교포사회가 경찰서와 협조해 커뮤니티가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지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래드 리 변호사는 "5년 전부터 한해를 조찬기도회로 시작했었으며 경찰서장 이름으로 열려왔다. 커뮤니티가 안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조찬기도회를 열게 됐다"며 "특별히 새로 임명된 서장과 한해를 시작하게 됐다. 오늘 기도회에 교계와 한인커뮤니티의 리더들과 만남을 통해 한인커뮤니티를 알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돼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한기형 목사, 정요한 목사(LA평통 중임과분위원장), 류당렬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기도 인도했다. 또한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경찰국(LAPD)의 임명된 패트리샤 샌도발 캡틴을 환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패트리샤 샌도발 서장이 환영사를, 정창용 회장, 서영석 박성수 수석부회장(LA한인상공회의소)가 인사말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2019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신년하례회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회장 박성원 목사)가 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개신교수도원(원장 김창길 목사)에서 2019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신년하례회를 갖는다. 회비는 20달러(부부동반 시 사모회비 면제).
▲문의: (718)683-8884

2019년 예일 프로그램 등록시작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소독에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2019년 예일 프로그램(Youth Academic & Leadership Empowerment-Y.A.L.E.)이 1월에 등록을 시작, 3월에 수업을 시작한다. 등록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며 20명 등록시 마감된다. 등록 정보: <https://www.familytouchusa.org/yalesat/>
▲문의: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

뉴저지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뉴저지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1월 21일(월) 오후 8시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945-1313

BLESSED 교육 컨퍼런스
뉴저지초대교회와 KPCA 뉴저지노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BLESSED가 2월 9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린다. 컨퍼런스 주제는 “즐거움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강사는 박형은 목사, 노승환 목사(토론토밀알교회), Charlene Jin Lee 교수(로울라메리마운트대학교). 아침과 점심이 제공되며 등록비는 10달러. 교사 외에 교회교육에 관심 있는 자들이 참석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필수. 등록방법은 다음 링크(<https://goo.gl/tBqBCH>)를 클릭해 내용을 작성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1차 등록 마감은 2019년 1월 18일(금), 등록비는 컨퍼런스 당일 교회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http://usaamen.net/theme/community/ad/2018/1228.pdf>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508)768-5135 오세준 목사, (646)300-4790 조희창 목사

박태규 목사 모친 별세
뉴욕목사회 회장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 담임)의 모친 김용순 권사가 한국에서 12월 31일 새벽 6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5세. 장례는 1월 2일 성남 영생원에서 화장으로 치러졌다.
▲문의: nykacag@gmail.com

뉴욕영안교회 신년집회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가 1월 13일(주일) 오후 5시부터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상한 목사(신복교회 담임)를 강사로 신년집회를 갖는다.
▲문의: (917)963-9356

김승희 목사, 퀸즈교협 '우수목회자상' 수상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담임, 사진)가 미국 퀸즈교회협의회(The Queens Federation of Church)에서 수여하는 2019년 “우수목회자상(Meritorious Ministry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승희 목사는 “역사같은 ‘우수목회자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 상을 계기로 한인교회들이 미국 교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고 사역을 공유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목회자 상은 1961년부터 16년 동안 퀸즈교협 사무총장을 역임한 그랜트 F. 앤더슨 목사를 기리는 상으로 1983년부터 시상해왔으며 한인목사로서는 처음이다. 시상식은 퀸즈교협 88주년을 맞아 1월 25일(금) 오후 7시 플라싱 매도우 파크에 있는 테라스언더파크에서 열리는 연례만찬에서 있게 된다. 한편 김승희 목사는 2015년에 한인 목회자 최초로 엘리사 아일랜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엘리사아일랜드 상은 전미 소수민족연대협의회가 1986년에 제정한 상으로 미국사회 및 이민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도자와 이민자에게 주는 상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성가단, 너싱홈서 위문 찬양공연

뉴욕장로성가단(단장 김재관 장로)이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플라싱에 있는 유니온 플라자 너싱홈을 방문, “위문 찬양공연”을 가졌다. 유니온 플라자 너싱홈은 한인들이 많이 입원하고 있는 곳으로 장로성가단은 이날 환우들에게 새해 인사와 아울러 선물을 증정했다.

공연은 뉴욕장로성가단의 합창 외에 소프라노 유영숙, 트럼펫 듀엣, 아이노스중창단,

크리스탈 핸드벨 앙상블, 톰슨 주 등의 순서도 있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뉴욕장로성가단은 이날 첫 곡으로 “다정하신 주님의 품에”를 합창했다.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 신년하례회 참석동문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그리스도 사랑에 사로잡혀 살라” 미주동부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신년하례회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이재철 목사)가 8일 오전 11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드렸다. 이날 김인환 전 총장내외와 54회 동문부터 103회 동문까지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며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1부 예배는 수석부회장 구자범 목사(80회) 인도로 기도 김성국 목사(82회), 성경봉독 장의한 목사(79회), 특송 임원 일동, 설교 이재철 목사(79회), 헌금기도 박영수 목사(90회), 광고 이윤석 목사(80회), 감사 패 증경(직전회장 박성원 목사에게), 축도 정익수 목사(54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철 목사는 “사로 잡혀 사는 사람”(행20:31-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공동체가 움직인다”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뤄 가신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묻고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았다. 둘째, 깨끗한 삶을 살았다. 셋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다”



뉴욕참사랑교회가 성탄절 예배에서 4개 단체에 기금을 전달했다.

참사랑교회 성탄절예배서 1% 나눔 행사 4개 단체에 총 48달러...10년째 계속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는 지난달 25일 성탄절 예배를 통해 교회예산의 1%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 나눔은 선교와 구제와는 별도로 10년째 해오고 있다. 은희곤 목사는 “참사랑교회는 지난 10년간 성탄절에서 술선수범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일들을 해왔다. 요즘에 이민한인교회들이 다 어렵다. 참사랑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12월 초 회의에서 참석한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마음을 모았

다”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4개 단체에 각 1천2백 달러씩 총 4천8백 달러의 기금을 전달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4개 기관은 노숙인 사역을 하는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할렘 노숙인 사역을 하는 브니엘선교회(대표 김명희 선교사),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호프재단(대표 김종성 목사), 해외아동들을 결연해 떡과 복음을 제공하는 미동부국제기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 등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살롯장로교회 2019년 금식기도로 시작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는 2018년 12월 23일 주일을 성탄절예배로 드리고 성탄절 전야에는 성탄축하예배로 진교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30일에는 송년예배,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 동안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할 뿐이나 주님의 뜻대로 더욱

살지 못한 후회와 반성으로 회개하며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는 의미로 2018년 마지막을 예배에 집중하며 2018년을 보냈다.

이어서 2019년 새해 첫날은 각자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와 묵상으로 신년을 맞았다. 또 각자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금식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격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며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혜롭게 나라를 지도해야 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교회별 참석인원 파악 급선무 뉴욕교협 신년하례만찬 3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이 14일 신년감사예배를 앞두고 지난 7일 3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오전 10시30분 뉴욕대교회(담임 김진 목사)에서 드린 기도회 1부 예배는 하정민 목사 인도로 기도 전희수 목사, 성경봉독 손순대 장로, 설교 마바울 목사, 합심 통성기도 박이스라엘 목사(제45회기 감사예배 및 신년하례만찬을 위해), 김재관 장로(뉴욕교계와 교포사회를 위해), 박항우 목사(세계선교와 선교사를 위해), 광고 이창중 목사, 축도 박문근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준비위원장 마바울 목사는 “군사 같은 제자의 삶”(엡6:12-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영적 힘이 있어야 한다”며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충만을 받으면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은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선약한 의지를 도와 주신다”고 말했다.

마 바울 목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협 산하 모든 목회자들이 바란다”고 강조했다.

2부 회무처리는 정순원 목사 사회로 정재현 목사 개회기도 후 신년하례만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정순원 회장은 14일 오후 7시 플라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총 440석이 준비된다며, “교회별 참석인원 파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주소록 출판에 대해서는 양민석 출판위원장이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양 목사는 주소록에 수록된 광고료가 총 45,700달러라며, 신년예배에 수첨과 함께 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년하례만찬 순서지에 수록될 광고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오는 2월 15일(금) 교협 제 2차 임신행위원회가 열린다. 이날 1차 때 발표하지 못했던 예산안이 발표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신년하례만찬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CSO와 Streamside Ministry가 공동주최한 유스 연합수련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The Truth” 주제...38교회 210명 참석 CSO-Streamside Ministry, 유스연합수련회

지난 10년간 뉴저지 지역에서 중소형 교회를 섬겨왔던 CSO(Church Support Organization)와 유스 전문사역 단체인 Streamside Ministry가 공동으로 개최한 Youth Wave Conference(연합수련회)가 Westin Hotel in Princeton에서 지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개교별회 수련회를 준비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함께한 이번 수련회는 “The Truth”라는 주제로 총 210명 38교회가 연합해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주강사는 Sam Lee, Faith Cho, Peace Lee 유스사역 전문 목사들이 맡았으며, Chaewon Seo, Veronica Caballero, Brian and Pam Wheelock, Peter Song, David Kim이 선포강사로 각 분야마다 관심 있는 다양한 선택 세미나가 준비돼 진행됐다.

또한 유스 사역자를 위한 트랙이 운영돼 유스 사역자들의 고민과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

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Truth)와 가치관을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참석교회는 백민교회, 호산나교회, 세빛교회, 가나안교회, 주님의교회, 시냇가에임은나무, 지구촌교회, 컨넥티킷사랑의교회, 내리강리교회, 복된교회, 그레이스벨벳, NJ 우리교회, 시나브로교회, 축복의교회, 퀸즈감리교회, 새하늘교회, 뉴욕세광교회, 수정교회, 열린문교회, 뉴욕한인제일교회, 호산나, 드림교회, 축복의교회, 내리연합감리교회, 캐나다서부장로교회, River Church, Sisimna Church, NY All Nations Church, NJ Full Gospel, Korean Church of Westchester, Catalyst Agape Church, Global Community Church, Missionary Alliance Church, First Presbyterian Church, Zion City Church, Light church, Church on the Hill.
(기사제공: CSO)



살롯장로교회 성탄감사예배에서 주일학교 교육부가 찬양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교회 기도로 새해 시작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2018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예배로 2019년 새해를 일제히 맞이했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남가주든든교회(김현인 목사)의 특별새벽예배를 시작으로 신년 첫 주와 둘째 주에 걸쳐 기도로 시작했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주님의 기쁨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주제로 은혜이슬새벽부흥회를, 나성금란교회(이석부 목사)는 '축복의 통로(창 12:2-3)'라는 주제로, 남가주 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와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성경하라!'라는 주제로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는 '새로운 시작, 마음을 다하여(신 6:4-5)'라는 주제로 2일부터 5일까지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성화장로교회(이동진 목사)는 3일부터 5일까지 '새벽의 말

씀과 기도로 여는 삶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새벽기도회를 가졌으며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다니엘새벽기도회를 2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으로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는 신년축복 여리고 특별새벽예배를 7일부터 12일까지 가졌으며 나침반교회(민경영 목사)는 '복음이 바꾼다'라는 주제로 2019년 신년저녁 기도집회를 가졌다.

또한 선한정지교회(송병주 목사)는 신년말씀사경회를 중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는 신년부흥회를 갖는 등 남가주 교회는 2019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다.

다음은 2019년 신년특별새벽기도(저녁기도) 및 집회 일정이다.

일정	교회	비고
12월17일-1월5일	남가주든든교회(김현인 목사)	
1월 1-5일	LA연합감리교회(이창민 목사)	
1월 2-12일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1월 2-5일	생수의강선교회(안동주 목사)	
1월 2-5일	나성금란교회(이석부 목사)	
1월 2-5일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1월 2-5일	남가주기쁨의교회(이황영 목사)	
1월 2-5일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1월 2-5일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1월 2-5일	대홍장로교회(권영국 목사)	
1월 2-5일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	
1월 2-5일	포감사선교회(최경옥 목사)	
1월 2-5일	라벨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목사)	
1월 2-5일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	
1월 2-5일	베델한인교회(김현인 목사)	
1월 2-5일	사랑의빛선교회(윤대현 목사)	
1월 2-5일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1월 2-5일	오렌지한인교회(김유진 목사)	
1월 2-5일	유니온교회(김신일 목사)	
1월 2-5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1월 2-5일	파사데나장로교회(이동우 목사)	
1월 2-5일	포도원교회(정영민 목사)	
1월 3-5일	성화장로교회(이동진 목사)	
12월31일-2월10일	오렌지카운티연합감리교회(김종규 목사)	신년축복 40일 기도회
1월 2-11일	주남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신년축복저녁예배
1월 7-12일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1월 7-12일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	
1월 7-12일	밸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1월 7-12일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심정섭 목사)	
1월 7-12일	샌디에고소망교회(이창후 목사)	
1월 7-12일	인랜드교회	
1월 7-12일	ANC오누리교회(김태형 목사)	
1월 7-12일	나침반교회(민경영 목사)	
1월 7-12일	신년저녁집회	
1월 8-12일	월서연합감리교회(신영각 목사)	
1월 21-23일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정수일 목사)	
1월 2-5일	선한정지교회(송병주 목사)	신년말씀사경회(강사: 기동연 교수)
1월 3-4일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	신년특별저녁집회(강사: 권영국 목사, 김태형 목사)
1월 9-12일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신년축복부흥성회(강사: 강성영, 정수일, 권영국 목사)
1월 10-13일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홍상열 목사)	신년부흥회(강사: 박득훈 목사)
1월 11-13일	산디에고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	신년부흥회(강사: 김영현 목사)
1월 24-27일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정수일 목사)	부흥집회(강사: 김원기 목사)
1월 25-27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신년축복성회(강사: 장학일 목사)
1월 25-27일	밸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신년말씀집회(강사: 이성호 목사)



담임목사 취임식을 마치고 사모와 함께 기념촬영

“복음전파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윌튼한인장로교회 제2대 한현종 담임목사 취임

윌튼한인장로교회 제 2대 한현종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12월 30일 오후 3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박준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도우 장로의 기도와 윌튼교회 성가대 찬양에 이어 박준철 목사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됩시다'(요12:20-26)란 제목으로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 곡이 나오듯 열매를 맺는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한 알의 밀알처럼 섬김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한현종 목사의 서약과 교인서약이 있는 뒤 한현종 목사를 윌튼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공포했다.

이날 축가는 LA송실OB남성 합창단이 했으며, 최승구 목사의 권면이 있은 후 김도우 장로가 담임목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담임목사로 취임한 한현종 목사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 밀알처럼 복음전파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며 박준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윌튼한인장로교회는 1972년 설립된 교회로 1년 전 김도석 초대 담임목사가 소천했다. 한현종 목사는 지난 6년 동안 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해왔다.

(이성자 기자)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시상식이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제 20회 재외동포문학상 시상식

제 20회 재외동포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21일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용언(남, 1950년생)씨가 시 부문에서 가작을 수상했다. 작품명 '아리랑'에서 그는 40여 년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느낀 사실적 경험을 자신만의 상징과 재치로 표현했다.

1999년 제 1회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시행돼 올해 20회를 맞이한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을 장려하고 민족 정체성 유지 함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이다.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이상 성인), 한국 방문 및 한국어 학습경험담, 한글학교에서의 일화 소개, 그리고 기타 자유주제(이상 청소년)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성인은 거주국 7년 이상, 청소년은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하면 참여할 수 있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서부교회게 게시판

시드USA 미주대표 취임 및 신년감사예배

시드USA 신년감사예배와 박신욱 선교사의 대표 취임예배가 15일(화) 오전 11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62)926-4700

세리토스장로교회 2019 신년축복성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17일(목)부터 20일(주일)까지 최광언 목사(아르헨티나제일교회)를 강사로 열린다.

▲문의: (562)677-7777, (562)860-5451

KUMC 남가주여성교회 신년하례식

한인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여성교회 신년하례식이 12일(토) 오전 9시 밴나시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818)785-2103

인랜드교회 2019 선교컨퍼런스

인랜드교회는 2019 선교컨퍼런스를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갖는다. 일정과 장소는 11일(금) 저녁 7시30분 분당, 12일(토) 오전 8시30분 브니엘채플, 13일(주일) 1-4부 예배 분당이다. 강사는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문의: (909)717-0909, (714)705-9123 김택영 목사

성경 66권 3박4일 완독 집회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이 주최하는 '성경66권 3박4일(약5시간) 통독집회'가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라모나 수양관에서 열린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는 70달러(부부 100달러). 집이 가까운 분은 집에서 왕래가 가능하다.

▲문의: (909)268-4279

남가주목사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 이취임 감사예배가 13일(주일) 오후 4시 30분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린다.

▲문의: (323)404-3147, (323)578-7933

한미연합감리교회 신년말씀사경회

한미연합감리교회(담임 한동수 목사)는 신년말씀사경회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문의: (719)570-0300

라크마 & LA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회

라크마(지휘 윤임상 교수)와 LA마스터 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음악회가 13일(주일) 오후 6시 더 쇼야(밸리포퍼미아트센터 18111 Nordhoff St, Northridge)에서 열린다.

▲문의: (818)648-2622

제8회 미주성경적상담컨퍼런스

제8회 미주성경적상담컨퍼런스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 성경적 상담설교(로마서의 상담설교)'라는 주제로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캘리포니아 아트 유니버시티(41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전형준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성경적상담학회 회장)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의: (714)864-7540 드보라 김 목사, (909)502-1552 김성희 간사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cus@yahoo.com / www.lafcus.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박은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영성)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심화(월-금): 오전 5:30 3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7:0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p> <p>Tel: (562)691-0691,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순절(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대홍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웨스 경윤,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04</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양)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j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청년영양예배: 오전 9:15, 11:30 말씀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www.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LA 복음연합감리교회</h3> <p>담임목사: 김효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요셉선교교회</h3> <p>담임목사: 정상기</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818)634-2315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h3>얼바인침례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p> <p>Tel: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3>윌서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침례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27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55-4:55(토) 오전</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행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침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Tel: 310-370-5500, Fwww.torra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평화-3·1운동-부흥’ 키워드로 새롭게

교계 연합기관·교단 신년사에 담긴 비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3·1운동 정신 계승, 부흥을 향한 열망.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의 신년사에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다. 신년사가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3·1운동, 부흥은 2019년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신년사에 담겨 있는 지향점들을 살펴봤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 훈풍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를 실감케 한다. 통일과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노력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총회장 김영수)는 “북

녘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리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다. 한국교회는 역사적 교훈과 초창기 영성을 되살려 교회와 사회에 적용할 사명이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은 “역사의 소중한 가치를 기념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성희 회장은 “3·1정신이 외쳤던 역강부약의 질서는 성서가 말하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위로와 맞닿아 있다”며 “3·1운동 100

주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기회”라고 독려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총섭 목사)는 3·1운동의 신앙을 이어 “정의·평화·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자”고 발표했다.

기독교 정체성을 공고히 하면서 영적 부흥을 이루자는 메시지도 많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임형석 목사)은 “내년 한 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교회마다 부흥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권했다. 예장통합은 신년사에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구절을 인용했다.

예장합신(총회장 홍동필 목사)도 “말씀 순종을 제시하고 “

새해가 되기에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야 새롭게 된다”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고 밝혔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부흥을 고대하면서 ‘교회 세움’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성원 목사)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기순 목사)는 복음전파를 통한 작은 교회 부흥과 사중복음의 교단 정체성 확립을 각각 주문했다. 대한성공회(의장주교 유낙준)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동회장 전명규)는 각각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성경적 회개와 중생, 변화된 삶’을 강조했다.

안양대 대순진리회 매각 반대

이사진 교체에 비상대책위 반발 확산

안양대 이사회가 대순진리회 관련 단체인 대진성주회 측 인물들로 이사진을 교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양대 신학대 학생들과 교수, 동문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는 지난 28일 안양대 수봉관에서 전 학생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

에는 신학대와 일반대를 포함,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일부 이사진들이 대진성주회와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우일학원 이사회는 지난 17일 대진성주회 측 인물 2명을 새 이사로 또 추천했다. 지난 8월 대진성주회 측 인물을 추천한 이사가 이번

에도 새 인물을 추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시진상조사위원장 강경림 교수는 “대진성주회 측 인물을 이사로 추천한 이사진들이 모두 ‘이사장 요구로 추천 안건을 올렸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공청회에 앞서 진행된 기도회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도자로 나선 왕현호 신학대 학생회장은 “어두운 고난이 교정에 닥쳐 왔다”면서 “비대위가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뤄질 줄 믿는다”고 기도

했다.

비대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안대준 목사)과 함께 공동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은규 위원장은 “이사 승인 취소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8일에는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안양대 이사장의 매각 시도를 저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500여명이 동의했다.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 목사의 설교권과 당회장권 등 직무 일체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김두중 김근수 이화숙 김근숙씨 등 오 목사 반대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10일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강단에서 설교하

거나 당회 소집과 사회, 계약체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할 경우 1회당 10억원씩 자신들에게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변호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오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공고문 180개를 교회 안에 붙여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 의 임시당회장 파송이 적법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를 총찰(總察)하는 직무를 맡은 동서울노회가 지난 17일 임시노회를 열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해 김씨 등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김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목사가 교

회 대표자로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반대파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신청인들은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본안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쟁점”이라면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오 목사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히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박진석 목사는 지난 20일 오 목사에게 설교권을 부여했다.

100년 전 하나 됐듯, 통합정신으로 분단 극복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100년 전인 1919년 이 땅은 3·1운동의 만세 소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희망으로 들끓었다. 자주독립의 열망으로 시작된 3·1운동과 그 열매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자주(自主) 평화(平和) 화해(和解) 일치(一致)의 정신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100년이 흐른 오늘날 겨레의 온전한 자주독립은 미완이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채 73년의 세월을 지냈고 이념·계층·양성 간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장로교 감리교 등 교파를 뛰어넘어 타 종교와도 연합한 3·1운동의 기독교인, 좌와 우를 구분하지 않고 민족노선을 추구한 임시정부의 통합 정신이 절실하다.

한완상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3·1운동에 감명받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임시정부를 세웠다”며 “민주공화제와 비폭력, 평화 이 세 가지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북한과의 공동 행사 성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역사학계 원로들은 ‘미완의 3·1운동’을 분단체제 극복으로 완성하자’고 촉구했다. 강만길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100년 전 독립이 역사적 과제였다면 지금의 과제는 평화통일”이라며 “독립을 위해 임시정부가 좌우 합작에 힘썼듯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통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은 “체제 경쟁을 벌인 남북이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만절필동(萬折必東·황하는 수만 번 굴절해 흐르다 기필코 동쪽으로 도달한다)처럼 통일이란 큰 바다에 안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덕주 전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한반도가 하나 되는 일에 기독교인이 한 앞의 밑일이 되자”고 당부했다.

국민일보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으로 ‘3·1운동 100주년과 한국교회’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발자취와 평가’를 보도한다.

‘3·1운동 100주년과 한국교회’는 비폭력·민족자결·교회일치를 추구한 3·1운동의 기독교적 가치를 집중 조명한다.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의 거점이었던 교회와 미션스쿨들을 발굴해 우리 동네,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음을 전할 예정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발자취와 평가’는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함저우 자싱 광저우 충칭 등 임시정부 27년의 흔적들을 살펴본다. 임시정부의 서방 외교 근거지였던 미국 워싱턴DC와 제1차 한인의회가 열린 필라델피아도 방문할 예정이다.

임시정부가 공포한 임시헌법을 분석해 100년 전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의 모습도 다시 그려본다. 임시정부 외교 전략과 광복군의 활약상, 임시정부를 도운 외국인 조력자들의 흔적을 되짚고 무명의 독립운동가들도 발굴할 예정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독교기념사업위 발족

“3·1정신 회복하자” ... 국민일보, 국민목회자포럼 21일 발족식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앞두고 ‘3·1운동 100주년 기독교기념사업위원회’가 발족했다. 국민일보(사장 변재운)와 국민목회자포럼(대표회장 소강석)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기독교계를 비롯해 정·재계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했다.

‘100년의 기억, 위대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 건 기념사업위원회는 3·1운동의 중심에 섰던 기독교의 희생정신을 현대화하고 감춰져 있던 선교사와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소강석 대표추진위원장은 사업 소개를 통해 이 같은 활동 계획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일상칼럼

〈8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겠지만 새롭게 펼쳐주시는 날들을 살아갈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일들을 과감하게 뒤로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백세시대가 온다고 해도 친구가 신년인사 글에 적었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짧을 것은 확실한 일이다. 오랜 세월을 알던 집사님은 연말연시를 미국에서 지낸다고 한국에서 놀러왔다가 성탄절 다음날 응급실로 간 후 1월 1일에 세상을 떠났다. 또 우리학교 교수의 부인되는 연은 암투병 끝에 1월 2일에 어린아이들을 남긴 채 주님께 갔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의 마음이 기대로 부풀어 이 한 해의 첫 시작에 이미 주변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인 것을 다시 생각한다. 선물로 주어지는 올 한 해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좋은 새해계획도 세우며 실천을 위한 결심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의 계획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별히 주님과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올 한해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나의 최선을 드러내 그 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다. 나의 가는 길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 두려움 없이 새롭게 걸어가는 2019년 하루하루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씩씩하게 걸어가고 싶다.

주님, 올 한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저희를 돌려주소서.

lpyun@apu.edu

신천지 상대 국내 첫 ‘청춘반환소송’

이단·사이비 종교집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송이 시작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홍연호)는 12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지난 12월 24일 대전지법 서신지

원에 제출했다.

소송의 취지는 신천지가 헌금뿐 아니라 봉사나 강제 예배 참석 등으로 젊은 시절을 빼앗은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총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외에 교주 이만희(87)씨와 김남희 전 국제여성평화그룹(IWPG)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진다.

2014년 신천지에 빠진 B씨는 충남 서산에서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업했다. B씨는 “어린이집이 무너져야 아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가족 사업이 무너진 뒤 아내와 가족 간 갈등이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B씨의 딸 C씨는 “IWPG에서 일했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천지의 실상”이라며 “IWPG가 평화를 명분으로 일반인들에게 돈을 걷는

CMS 시스템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전피연은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배임) 위반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주 이씨와 김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기도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각각 수십 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연, 2018년 개신교 인식 분석 발표

1000명 대상 1982년과 비교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경력은 길어졌지만 공식 예배 참석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보고서’ 상의 설문조사와 비교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박재형 기사연 연구실장은 24일 “모집단이 다르고 질문 문항에도 차이가 있지만 지난 36년간 신앙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이라며 “2019년 종합조사 때는 분석 틀을 더 정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개신교인 인식조사에선 72.5%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답했다. 특히 ‘20년 이상’이란 응답이

58.1%로 압도적이었다. 1982년 설문조사에선 평신도의 교회생활 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년 이상이란 응답이 52.3%였다. 2018년과 견줘 약 20% 정도 낮다. 세월이 흐른 만큼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 경력도 길어진 것이다.

반면 2018년 조사에서 신앙 경력이 ‘1년 미만’이란 응답은 4%, ‘1년 이상~5년 미만’ 답변은 9.9%에 그쳤다. 이를 분석한 성공회대 인식상 연구교수는 “새롭게 전도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현격히 감소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식적 예배 참석 횟수 역시 80년대만 못하다. 2018년 조사에서 한국 개신교인의

72.2%는 일주일에 1회 이상 공식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한다고 답했다. 그중 ‘일주일 1~2회’ 답변이 58.8%, ‘일주일 3회 이상’은 13.4%였다. 반면 1982년 조사에선 평신도의 ‘일주일 2회 이상’ 교회 출석 비율이 84.8%였다.

‘신앙심이 깊은가’ 질문에 2018년 조사에선 ‘보통’ 응답이 44.9%, ‘그렇다’ 25.5%, ‘매우 그렇다’ 8.6%였다. 질문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1982년 조사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질문에 목회자의 98.3%, 평신도의 93.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신 연구교수는 “교회 공식 행사 참석 횟수가 줄었다고 해도 신앙생활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장기적 신자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이라며 “신앙의 지속성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신앙생활 기간 늘고 공식 예배 참석 횟수는 줄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원장 김영주)은 지난 2-3월 전국 만 20세 이상 개신교인 800명과 비개신교인 200명 등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이를 1982년 발표된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만 36년간 신앙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이라며 “2019년 종합조사 때는 분석 틀을 더 정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개신교인 인식조사에선 72.5%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답했다. 특히 ‘20년 이상’이란 응답이

교도소 선교칼럼 (52)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고난과 치유

오마 카스타네다는 강력한 리더이다. 그는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 많은 재소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었다. 어떻게 오마가 호세 마케스를 도와줬는지에 관한 한 간증이다.

“진정한 부흥의 이야기”-호세 마케스

교도소에 오기 전 나의 생활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거리에서 마약매매를 하고 불법을 일삼았다. 딱 한 번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 후에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다. 마약과 술을 마시며 심지어 아내를 구타하기도 했다. 그럴 무렵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가출한 아내를 집에서 기다리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나를 교도소에 감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로 라틴 음악프로그를 듣고 있는데 아내가 새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사연을 듣게 되었다. 갑자기 크도록 우울해지며 자살충동을 느꼈다. 침대 시트를 찢어 내 목에 둘둘 감는 순간 감방 동료가 교도관에게 소리쳤고 나는 한 주 동안 자살 방지를 위한 병실로 옮겨졌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떠올라서 다시 삶의 의미를 가져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법정대기실에서 한 재소자와 다투다가 그가 내 목을 손으로 바닥에 내던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 병원치료를 받은 후 A동 1호 방에 수감되었고 그 곳에서 오마라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나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나님조차 나를 도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독방에서 페리 박스터가 쓴 “신성한 지옥계시”(A Divine Revelation of Hell)를 읽으며 마침내 영적으로 깨어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독방에서 나온 후 일주일 내내 오마 형제가 하는 성경공부에 참석했다. 그 때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3:16절과 갈라디아서 4:4-6절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

다. 바울은 말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의 아들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19-20).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받았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4:9).
이제야 왜 내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다.

“섬기는 기쁨”-오마 카스타네다

나는 문신 아티스트로 15년 동안 피어싱을 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약매매를 하는 바람에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지역을 장악하고 독점판매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게 되면서 내 인생은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02년 나는 마약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다행히 중형선고는 피할 수 있었다.

“주 예수님, 제 인생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2004년 4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주님과 나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나는 15년 동안 마귀를 섬겨왔다. 이제 나는 앞으로 1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다. 이 15년이 지나면 마귀를 섬긴 15년과 하나님을 섬긴 15년 둘 중 어떤 15년이 더 좋은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후 내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집과 가족을 잃고 10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했다. 그녀와의 사이에 두 딸이 있었는데 작은 딸은 엄마가, 큰 딸은 내가 맡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교통사고로 폐에 혈전이 생기고 갈비뼈 세 개가 부러지는 일까지 겹치게 되었다. 그 당시 동거하는 여자의 여동생이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그 남자를 혼내주러 찾아갔는데 나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

평안

다. 하나님께 나의 향한 계획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24장 12절과 13절을 보여주셨다. 자수하든지 계속 도망가든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리에서 마약을 팔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말을 선포할 것이다.” “제 인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주소서.”

나는 그 길로 자수했다. 거의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겨왔고 날마다 기쁘게 지내고 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도우며 분노와 혼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 그들은 기쁨과 평안을 회복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웃으며 이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제 인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곧 나의 매일의 삶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지식으로 나는 매주 세 개의 성경공부를 인도하였다. 나와 같은 상황에서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곧 치유 받는 은혜의 장소임을 말해주었다.

어떤 것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라.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15년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나는 다시는 마귀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계 20:10, 15). 나는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요8:36).



니카라과

2019 목회자 핸드북 세미나

지난 30여년간 뉴욕 브루클린에 소재한 뉴욕한인연합교회를 섬기다가 조기 은퇴하고 니카라과에 영성 사역을 위하여 나실인 공동체를 개설, 한인 선교사들과 현지인 목회자들의 사역을 섬겨온 오영관 선교사가 5번째로 '2019 목회자 핸드북'을 펴냈습니다.

지난 12월 29일에는 오는 2월에 전도대회를 개최할 까라소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또 12월 31일에는 마사야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핸드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남미 목회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변변한 목회 자료나 설교자료 없이 중구난방으로 개인의 영성에 의지하여 설교하는 것을 지켜본 후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교회력에 맞추어서 사도신경, 교회력에 따른 주일 성구와 주일예배 설교자료, 성경에 수록된 여성 인물과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한 저녁예배 설교자료, 그리고 약보를 볼 줄 몰라서 니카라과 개신교회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찬송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문을 그대로 스페인어로 번역한 교육문을 수록하여 그야말로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설교자료를 비롯한 자료들은 김복순 선교사, 김연희 선교사, 이현숙 선교사가 번역하고 Juan Carlos Davila 목사가 교정을 보았고, 찬송가 50곡은 이동홍 선교사가 선정하여 편집하는 등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선한 사역에 함께 협력하여 목회자 핸드북을 펴낸 점입니다.

모쪼록 2019 목회자 핸드북이 현지인 목회자들의 목회와 설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4면에서 계속>

제가 군대에서 복학하여 대학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고 있던 어느 겨울에 심한 감기로 편도선염을 앓게 되어 고열과 몸살의 고통으로 너무 힘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편도선이 부어 목이 아프면 늘 옆에 앉아서 머리를 짚어주시고 미음을 먹여주셨던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계신 어머니 생각하며 울었고 너무 아파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심방을 오셨습니다.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구절을 읽어주셨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15절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주실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울다가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제혜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던 상태였는데 열이 내리고 통증도 없어지고 온몸이 날아갈 듯이 상쾌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학교 앞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회에 나가서 감사하며 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약 40년간 목회하면서 때로 어려울 때면 “하나님 제 어머니가 저를 잊어도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날마다 저를 기억하고 계시죠”라고 확인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찌 이러한 간증이 제게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해도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 혹시 오더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전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므로 잘 이겨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나쁜 일은 모래 위에 써 놓고 좋은 일은 대리석에 새겨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과 더불어 지난간 좋지 않은 일들은 모래 위에 적은 글처럼 지워버리고 밝아온 2019년에 주실 또 다른 은혜의 순간들을 마음의 대리석에 많이 새기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생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확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얹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죽어 내리라”(사46:3-4). “I wish you a Happy New Year in Jesus our Savior.”
pwkim529@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5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3부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일훈련: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www.fkcby.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철</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운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3411),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철</p> <p>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7406-7577, www.nyantioch.com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2: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0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성경연구회: 오후 1:30 주일학교연합회: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1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8</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p> <p>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a.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퀸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바나바</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NCF영어: 오후 1:30</p> <p>Tel. (718)672-1150, www.kcany.org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288: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7시, 8시, 9시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7시, 8시, 9시</p> <p>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05-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6893-9754, 68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인</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심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구</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h4> <p>담임목사: 임한곤 목사</p> <p>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선교사역지의 필요를 위해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남미아태아 대학원” (1)



강성철 선교사
(GMS브라질 남부지부장)

들어가는 말

남미아태아대학원은 2014년 3월 1일, 5-7일 총신 국제대학원 졸업/학위수여식 후 필리핀 마닐라 제 10회 ATEA신학포럼과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비전을 나누는 후 2014년 그리스 아테네 11회 신학포럼과 정기총회, 아태대학원 설립에 이화평 선교사와 함께 참석하므로 남미아태아대학원이 태동되었다.

그 이후 2014년 7월에 서울 백석대학교에서 아태대학원 원장 취임한 김의원 박사의 취임을 함께 축하하고,

집으로 출발하였다. 주강사로 김의원 박사, 김연수 박사, 성남용 박사를 초대하였는데 김의원 박사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김연수 박사의 “성경 스토리텔링 사역과 선교”, 성남용 박사의 “한국인 입장에서 해석한 난민사역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주제 강연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발제 강의는 브라질과 남미를 깊이 연구한 김용식 박사(브라질 한인디아스포라 선교역사 방법론), 장화경 박사(브라질 선교전략으로서 영적전투의 상황화), 지덕진 박사(브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역사 정리, 보존, 전수 뜻 두고 설립 선교사 시공 경제적 문제해결, 자기개발, 현지학 연구 모색

2015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 12회 총회에 지덕진 박사, 장화경 박사와 함께 참여하여 캄보디아 아태대학원 개원을 축하하고 2016년 5월 1일 남미아태아대학원을 개원하였다.

남미아태아대학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운데 성령의 주도적 역할 속에 사랑을 받은 한국인 선배 선교사들의 선교역사를 정리하는데 뜻을 두었다. 즉 브라질 및 남미선교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정돈하여 그들의 삶과 사역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므로 역사성을 보존하며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였다.

또한 남미아태아대학원은 선교 동역자들에게 공간과 시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혜롭게 펼쳐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모여 공부하고 연구하므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라질 및 남미지역 방학을 깊이 연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다.

남미아태아대학원 시작

2016년 5월 11-13일 영광교회(김용식 목사) 남미 아태대학원 개원 기념(ALLS:AT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학술강좌를 가

라질 아마존지역 상황과 개신교 선교 현황 및 선교전략, 장현택 선교사(브라질에서 훈련되어 남미를 발판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선교), 박성흠 박사(아르헨티나 지역선교연구)가 각각 담당하였다.

남미아태아 대학원은 공개 학술강좌로 시작하였고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지도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온 주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이 지역 리더들의 강의로 시작하였다.

CONPLEI(브라질 및 남미아마존지역 지도자 연맹) 장현택 선교사가 “아직 복음이 필요한 세계의 열대 우림지역”, “GREEN WINDOW”를 살펴보고 주강사 김연수 박사의 “성경 스토리텔링 사역과 선교” 주제 강의를 들은 후 “선교사각에서 본 브라질 및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란 주제를 놓고 좌담회를 진행하였는데 패널에는 박성흠 선교사(GMS중남미지역 대표), 김선웅 선교사(GP 남미지역 대표), 손성수 선교사(미주교신선교사, 예수사랑교회), 김용식 목사(KCM브라질 설립자, 영광교회), 박한진 선교사(UBF선교회 브라질대표), 장화경 박사(코디아스선교회 대표), 지덕진 선교사(아마존개혁장로교 학장)가 함께 했다.

kangungchuel@gmail.com

세계기독교연인협회 독후감 공모전 대상



조훈호 전도사
(달라스 한우리교회)

책이름: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아멘’은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신앙의 척도로 여겨진다. ‘아멘’을 많이 외치고, 크게 외치는 성도들은 대체로 신앙심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이뤄지는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개념은 다르다. 바로 이 책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평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아멘’이 이뤄지는 곳은 바로 삶의 현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책을 읽는 동안 ‘진정한 아멘’이 이뤄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멘’이라 함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며, ‘아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결단의 고백에 합당한,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 없이 반복했던 ‘아멘’의 대사는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고개가 숙여지며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다. ‘아멘’을 통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약속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나는 얼마나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었다. 어쩌면 ‘아멘’을 외치며 교회 내에서 내 신앙심의 수준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만큼은 진정성을 담아서 외쳤는지 모르는 ‘아멘’, 그러나 그 외침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곳은 바로 내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미국으로 2011년에 아내, 그리고 10개월 된 큰 아이와 함께 유학을 오던 당시, 우리 부부는 안정적인 직장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다. 순탄할 것 같았던 유학생활은 말처럼 그리고 우리가 세워 놓은 계획처럼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인생의 ‘광야’와 마주해야만 했다.

저자는 ‘광야’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유학생활이라는 광야의 삶을 통해 ‘아멘’의 순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아닌 시작점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듣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아멘’이 삶의 현장에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됐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아멘’이 이뤄졌다면 광야 같은 삶의 곳곳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아멘’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의 적용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아멘’의 삶을 ‘말씀이 주도하는 삶’, ‘강인한 마음이 이끄는 삶’으로 말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의 지혜와 평생의 가치와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멘’의 삶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솔직히 그러한 삶은 단순하지 않다. 많은 인간의 연약한 감정,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 특히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말 그대로 정글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늘 끊임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속에서 ‘아멘’을 외치며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란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멘’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다른 외부적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 깊은 속 교만한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멘’의 삶이었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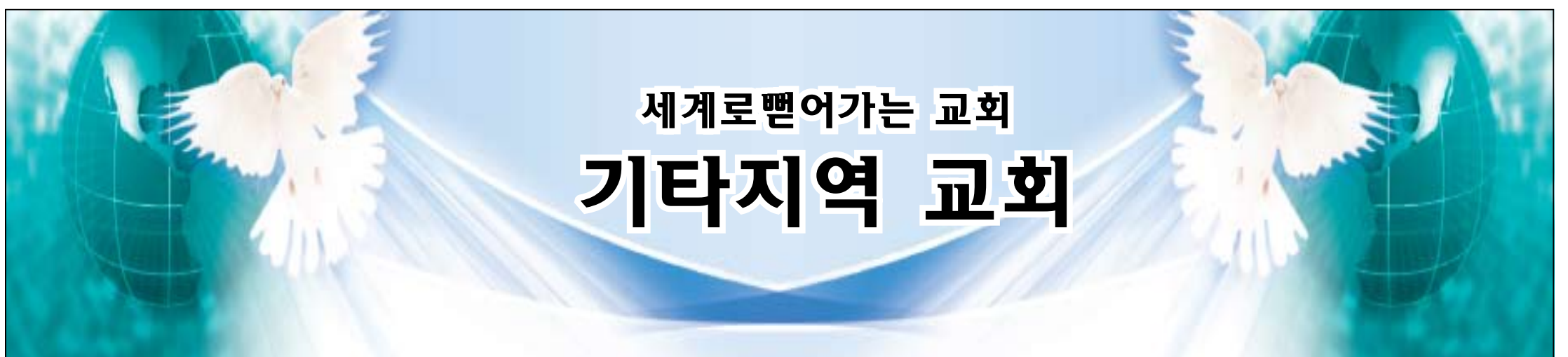
‘아멘’의 삶은 마치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한 결단과 순종, 헌신이 필요한 삶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덮는 순간 내가 느낀 ‘아멘’의 삶은 바로 축복의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 바로 축복의 현장으로 초청인 것이다. ‘주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정체성, 그리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삶인 것이다.

그 ‘축복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왜곡된 성공의 헛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갈림길은 ‘아멘’의 선포, 그리고 ‘아멘’의 행함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저자는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장으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했다. 그의 표현에서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증명’은 모두 중요한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을 이루며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의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준다. 영혼의 건강함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공급하심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한 삶은 결국 내 자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진 삶, 그 삶이 바로 ‘아멘’의 삶인 것이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 책은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아멘’의 축복된 삶에 대해 알려주었다. 깨달음은 기대로 이어진다. 작은 삶의 순간부터 ‘아멘’의 삶을 실천으로 옮기고 싶은 소망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뤄내고 싶은 기대가 내 마음속에 가득 부어졌다.

“아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한 것이라면, 이제 ‘아멘’의 삶은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가 주시는 축복의 삶의 모습을 내 삶 곳곳에 새겨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아멘’ 다음이 삶이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친밀하고 진정한 교제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아름답고도 귀한 축복을 누리는 ‘아멘’의 삶을 간절히 소망해본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세례기도회: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N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회, 위, 유배: 오전 10:45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위헌신년: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회, 위, 유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지혜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리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1 ■ N.Y.: Tel. (718)886-44 Fax. (718)886-01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영어로 보는 성경 (1)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말씀 가운데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Genesis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NIV)

WORD & IDIOM

- In the beginning : 태초에, 처음에
- God : 하나님
- created : create(창조하다, 만들다)의 과거
- the heavens : 하늘
- the earth : 땅

GRAMMAR

1절 말씀은 주어(Subject) + 동사(Verb) + 목적어(Object)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이다. 일반적으로 해석은 S=은, 는, 이, 가 / O= ~을, ~를 / V= ~하다)라는 기본적 틀을 갖는다. 여기서 in the beginning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로서 문장의 기본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In the beginning) God = S / created = V / the heavens and the earth = O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천지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꾼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정도의 문장이 될 것이다. 영어는 단어의 배열순서가 중요하다. 우리말은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도-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의미 전달은 가능하다. 그러나 영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장형식에 맞게 순서대로 단어를 배열해야 한다.

- Peter and John / preached / the Gospel / (in many Samaritan Villages.)
S V O Modifier(수식어구)

베드로와 요한은 / 전파했다 / 복음(을) /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3형식의 문장을 이루는 동사(완전 타동사) 중 몇몇 동사들은 그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아래의 같은 동사들 다음에는 in, with, to 등의 전치사가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필요 없이 동사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온다.

He entered the his house(그는 그의 집(에) 들어갔다) / He married her in 2019(그는 2019년에 그녀(와) 결혼했다) / He asked me(그는 나(에게) 물었다) 목적격의 우리말 해석에 유의하라!

STUDY & THOUGH

- 하늘을 복수명사인 heavens로 쓴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새가 날아다니며 구름이 떠있고 바람이 부는 하늘을 첫째 하늘로, 그 위의 금속판과 물이 있는 층을 둘째 하늘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끝없이 맑고 넓은 곳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하는 공간을 셋째 하늘로 생각했다.
- 창1:1의 말씀에서 '창조하셨다(created)'라 말의 원뜻은 무(無)에서 유(有)의 상태로 만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의미한다. 성경은 우주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단호하고 명료하게 선언하는 짧은 문장으로 그 막을 연다.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딤후4:1-2)찬402장

거짓교훈의 운동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항상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선한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화인맞은 양심이란 선악의 분별력을 잃은 굳은 양심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교훈을 쉽게 따르도록 혼미하게 만듭니다. 둘째,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2). 어두운 양심이 우리를 쉽게 외식하게 만듭니다.

인간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속과 겉이 다르게 살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셋째,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2). 이 외식은 거짓말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오직 진리인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한 신자가 됩시다.

화 거짓교훈의 특징(딤후1:3-5)찬379장

사도가 지적인 말세에 일어날 거짓교훈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니까? 첫째, 혼인을 금하게 합니다(3). 비성경적 금육을 강조합니다. 금육은 귀하나 금육주의는 인간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창조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혼인을 무시하는 그 어떤 형태도 모두 거짓교훈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이 교회

를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음식을 먹는 일에 율무를 만듭니다. 이상제물을 먹는 일을 일상생활의 경건의 정도를 논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4). 셋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4-5). 말씀과 기도도 우리는 이런 일을 기록한 것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 예수의 좋은 일꾼(딤후4:6)찬461장

예수 안에서 연합된 모든 신자는 충성된 일꾼이 됩니 삶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충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바른 교훈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바른 교훈은 성경과 그것을 적용한 진리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부터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때 어리석은 형제는 진리로 깨우치게 됩니다. 둘째,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는 훈련을 통해 그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참된 마음을 더하지 않으면 거짓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성장처럼 성경을 정기적으로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됩시다.

목 연단 받은 자(딤후4:7-8)찬381장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과 진리로 연단된 일꾼을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금같이 연단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7). 귀맛을 돋우지만 인간의 지혜를 따르면 망합니다. 진리는 성경뿐입니다. 둘째,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7).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왜 이것을 추구해야합니

까? 경건은 법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8). 자기훈련을 가리킵니다. 경건의 골자인 하나님의 성품, 의인신을 나타내기까지 항상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육처럼 연단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연단을 추구합시다.

금 미쁘신 말씀(딤후4:9-11)찬539장

사도의 확신과 찬양은 교회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 속에 공동된 은혜는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러 다른 말로 경건의 삶을 매우 강조합니다. 첫째, 경건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10).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목사의 사역 초점이 경건의 삶에 맞추어야 합니다. 둘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10). 교회의 모든

비전과 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11). 우리가 희생하는 목적과 영원히 나아갈 소망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모든 교회가 확신하고 모세의 노래처럼 교회의 찬양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실한 영원한 복음을 즐기며 온 세상에 전합니다.

토 경건의 본(딤후4:12-13)찬194장

교회는 경건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정하신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경건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경건을 보여야합니까? 첫째,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12).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구하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밖에서 물려오는 온갖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절을 지켜야 합니

다. 둘째,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13). 이 경건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 곧 읽기, 듣기, 연구하기 그리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경험적으로 알아 경건한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셋째, 성경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13). 목회사역은 바로 성경과 성령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동구 망우동 340-(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송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기이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3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05-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역곡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che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안암동 153-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성경목회, 부흥목회 세미나' 열린다

15-17일 미주양곡교회, 주강사 전태식 목사



공허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1988년 억지로 참석한 가족들과의 경건회 시간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 방언을 받게 됐고 그때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3분밖에 하지 못했던 그의 기도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8시간 이상 기도하게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순복음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당시, 눈이 오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그는 365일 하루

도 빠지지 않고 4년 동안 삼각산에 올라 강한 기도의 훈련을 했고, 어떤 신학적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는데 전무하는 훈련을 받았다.

전 목사는 복음의 불모지인 경남 진주에서 1992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땅 끝까지 전하는 교회'라는 슬로건 아래 "순복음진주초대교회"를 개척해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며 교회를 급성장시켰다. 2004년 총회 청원에 제2성전인 "정원진주초대교회" 설립, 2006년 서울 대치동에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를 개척해 분당을 거쳐 현재 서울진주초대교회는 서판교에 위치해 있다.

그는 또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관주해설 아바드성경의 저자이기도 하다.

기존의 관주성경이나 주석 성경과는 달리 관주와 해설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성경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성경을 성

경으로 풀다'는 원리를 적용한 "관주해설 아바드성경"을 출간해 교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태식 목사의 설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보다 우선한다는 믿음으로 어떤 인간적인 사상이나 생각,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경 속에서 예화를 찾고, 답을 찾아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행되는 전태식 목사의 세미나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는 미주지역 목회자들은 이민사회 가운데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강의를 통해 새 힘을 받고 도전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귀담한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213)500-8583/양곡교회 또는 (909)784-8986/박인석 목사aro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이민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경목회, 부흥목회 세미나'가 오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미주 양곡교회에서 열린다. 본 행사는 생명의양식선교연구원(원장 지용수 목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미주연세아카데미, 미주양곡교회 세계선교부가 주최하며 전태식 목사(아바드성경연구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지용덕 목사(연세 아카데미 원장)가 강사로 선다.

이번 세미나 개최 목적은 신년을 맞아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목회와 교회성명 생활의 임팩트를 주기위해 교계 연합으로 준비됐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고 노력하지만 목회 현실에서 실망하고 목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을 감안,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돌파구로서 '성경목회 세미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세미나를 준비하는 스텝들은 "신학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은 교회의 참 부흥은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성경목회는 참된 교회 부흥을 가져오고 목회자를 목장에서 행복하게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밝은 기독교 미래가 보인다. 성경은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러므로 목회의 기본은 성경이다. 성경 목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세미나에 주강사로 서게 되는 전태식 목사는 이미 서울 분당에서 성경목회를 통해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이루고 있어 전 목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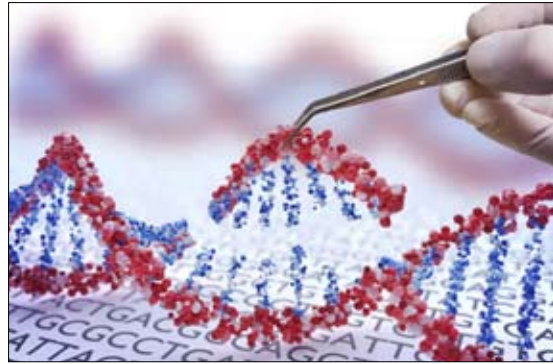
전태식 목사는 경남 사천(구 삼천포)에서 치과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유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무엇보다 착한 성품을 갖춰, 유년시절부터 어려운 학우들을 보면 자신의 좋은 옷뿐만 아니라

양말까지 바꿔 신고 다녀 부모에게 꾸중 듣기를 반복했고 장성해서도 어려운 이들을 보면 삶의 터전까지 거거이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에게 삶의 만족이란 없었고 많은 어려운 사

람들을 도왔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실망감 또한 컸다,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며 자랐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는 차라리 빨리 천국 가자는 마음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유전자 편집' 우리에게 필요할까?

컨베이션, 중국 과학자의 세계최초 '유전자 편집된' 아기 탄생(?)에 반론과 비판 제기



모든 아기는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허 교수의 경우 자신의 기법이 모자이크 현상과 비표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막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전 작업을 실시하고 그 작업을 동료 과학자들이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런 작업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좀 더 넓은 맥락의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나 허 교수는 그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나는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워킹그룹에서 활동했다. 우리는 20개월 동안 유전자 편집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지난여름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 결론은 배아의 유전자 편집이 실시되기 전에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전자 편집은 인간의 생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유전자 편집이 필요할까? 대다수 보고서는 낭포성섬유증 같은 유전병을 막기

위한 치료가 유전자 편집의 주된 용도가 돼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유전병을 자녀에게 대물림할 위험이 있는 커플은 출산 전, 심지어 체외수정으로 배아가 이식되기 전에도 검사가 가능한 검증된 기법을 사용해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연구는 사전 작업과 함께 예외 없이 동료 과학자들의 검토를 받고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에 발표돼야 마땅하다. 그 래야 과학자들이 이 기법을 검증가능하게 분석할 수 있다. 허 교수는 이런 과정을 우회함으로써 과학자들의 연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 당국도 허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엄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1월 27일 중국 CCTV에 따르면 쉬난핑 과학기술부 부부장은 "2003년 발표된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 관련 윤리지도 원칙'에 따르면 연구 목적으로 인간 배아세포에 대해 유전자 편집과 수정 실험을 시도할 수 있지만 14일을 경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 만약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한 규정 위반이며 중국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과 중국의 에이즈 연구자 140명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시한다"며 "이론이 불확실하고, 기술이 불안전하며, 위험요소가 통제 불가능하고, 윤리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인간 배아 줄기세포 편집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전남방과학기술대학도 허 교수를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허 교수는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성과에 대해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는 유전자 편집을 한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더욱 큰 논란을 예고했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아기'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강한 면역력을 갖도록 DNA를 변형시켰다는 설명이었다. 해당 분야의 동료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 주장은 확인 가능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우선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이런 연구는 현재로서는 시시상조이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World's first gene-edited babies? Premature, dangerous and irresponsible)고 조이스 하퍼(Joyce Harper) 런던대학 복제과학 담당교수는 주장했다. 하퍼는 1987년부터 동 분야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견지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전 남방과학기술대학의 허젠쿠이 교수는 제 2회 국제 인류유전자편집회의의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6일 HIV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루루, 나나로 명명된 쌍둥이 여아는 이달 중국 본토에서 태어났고, 이들 부모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겠다." 그는 불임 치료에 사용되는 배아 7개에서 유전자 가위로 알려진 도구 크리스퍼(CRISPR)를 사용해 CCR5 유전자(HIV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는 관문)를 제거함으로써 DNA를 편집했고, 지금까지 거처서 여아 쌍둥이 한

쌍이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유전자 과학 분야의 중요한 발전이다. 그러나 여기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학계 동료의 검토가 의무적으로 따르는 학술지에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허 교수는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폈고 기자들은 그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났다고 주장되는 쌍둥이의 부모는 신원확인이나 인터뷰를 거부했다.

둘째, 기존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인간 배아에 사용하면 아

주 중요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분야의 학자들은 잘 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모자이크 현상(mosaicism, '섞임현'이라고도 한다)'이다. 편집된 DNA가 배아의 모든 세포에 전부 다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에 유전적으로 다른 세포군이 혼재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비표적 효과(off-target effects,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교정하는 효과)'다. 그런 효과에 따라 유전체의 다른 부분까지 편집돼 다른 유전자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유전자 편집이 임상 처치로 자리 잡기 전에 과학자들이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어 배아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부작용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그로 인해 태어나는 미래의 아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심층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나는

INVITATION

은대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예배

Greetings in the precious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cordially invite you to join us at the Special Service
for the Presidential Inaugural Ceremony of The Korean Christian Pres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 신문사에서는
미주 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 예배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위로, 격려, 축하의 시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January 26, 2019, Saturday, at 6:00pm

Oxford Palace Hotel
745 South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9.8000

예약: 323.665.0009



이임 장영춘 목사



취임 김성국 목사

*예배후 만찬과 자그마한 선물이 준비 됩니다.